



2019 Happy Lunar New Year!

캔사스 시티 코리안 저널
KANSAS CITY
KOREAN JOURNAL



02 월
2019
FEBRUARY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The year of the pig



Tightening | Brightening
| Anti-aging | Guersion

피부 관리 | 목주름 관리 | 두피 관리 |
부종 및 혈액순환 완화

나만의 건강한 피부를 만들어 보세요!

Helen Seo
(913) 291 - 7172

Inside the Issue
이달의 지역기사

캔사스시티 한인회 주관 캔사스
지역 한인역사연구 모임을
다녀와서
PG. 6

안산시립합창단의 삼일절 100
주년 기념 캔사스시티 특별
공연
PG. 8-9

2019년 캔사스시티 한인회 신
년 하례회
PG 10-11

뼈과 근육 이야기 : 목통증
PG. 12

한방으로 보는 호흡기질환
PG 15

KANSAS CITY
KOREAN JOURNAL

FEB 2019
VOL #52 \$3.95

Breaking news online
kckoreanjournal.com

Find us on
Facebook

/ kckoreanjourn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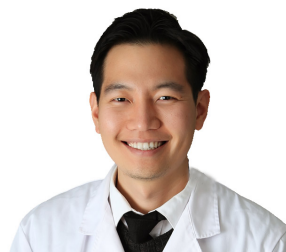
Dr. Kyunghwan An
Adjustments 교정 \$29
Acupuncture 침 \$29
Adjustments \$39
& Acupuncture
척추교정 & 침

Grandview Chiropractic & Acupuncture Clinic
12121 Suite O Blue Ridge Blvd., Grandview, MO 64030
Phone number: 816-217-0020

청정한약
빠른회복

816-444-1218

교통사고, 각종질환 양.한방전문협진 | 한의사 김일형



INSURANCE AGENT
보험 전문인

이 리사 (Lisa Lee Moran)

913-217-5169

Lisa@AutoHomeKC.Com

자동차, 주택, 사업, 생명, 메디케어 플랜
AUTO. HOME. BUSINESS. LIFE
MEDICARE HEALTH PLAN

7180 W 107TH ST., #10, OVERLAND PARK, KS 66212

platinum realty



김준수 세무 회계 부동산

세무 회계 부동산 종합 관리 시스템으로 고객의
비즈니스와 재산을 관리를 한층 업그레이드 해 드립니다.

JUNSU KIM, CPA, EA, MSA, REALTOR

10322 METCALF AVE, OVERLAND PARK, KS 66212

T.913-383-8558 / F.913-815-8810 / INFO@BIZPROKC.COM



|교|통|사|고|
당하셨습니다?
신태전

교통사고 전문의에게 치료를 받으세요
사고의 불편과 고통을 최소화시켜 드리겠습니다.

신태전 척추신경 통증
한방재활병원

예약전화: 913-649-2044



로한 척추신경 & 침술클리닉



아름다운 중심을 잡습니다

교통사고

운동상해

디스크 질환

어깨질환

임산부 교정

메디컬 마사지

디지털 X-ray



상담해드립니다.

- ✓ 학생 보험 및 각종 보험
- ✓ 무보험자 할인 혜택
- ✓ 교통사고와 직장에서의 사고는 환자 본인이 치료비를 부담하지 않도록 도와드립니다

#LohanChiro

교통사고 대처요령

- 1 사고 후 통증 발생 시, 911전화
- 2 상대방 운전자의 자동차 보험 카드 (이름, Policy#, 자동차 Year, Make, Model) 운전 면허증, 자동차 번호판의 정보를 확보
- 3 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으로 사고가 어떻게 발생되었는지 알 수 있게 현장 촬영 (전체 환경을 다 포함한 사진- 신호체계, 몇 차선 도로, 스타프 사인 여부, 차량 번호판)
- 4 상대방이 전적으로 과실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전화주시면 정확한 상담을 해드립니다.

교통사고 시 차량 제공



Lohan Clinic
South KC Office
816-444-1218 ext.1



Lohan Clinic
South KC Office
816-444-1218 ext.1



Lohan TEM
한방 클리닉
816-444-1218 ext.4



Lohan Clinic
Skin & Massage
816-444-1218 ext.3



자매 병원
Grandview Clinic
816-217-0020



로한 스킨 클리닉

f #LohanSkin

동안 관리

여드름 관리

얼굴 경락

미백 관리

리프팅 | 탄력

노화 방지

얼굴 경락은 막힌 피부를 풀어 괴사된 세포 및 유해한 독소 등이 림프에 의해 체외로 배출되면서 피부에 산소포화도가 높아져 혈기가 좋아지게 합니다.



Jet Clear는 강력한 압력을 이용해 직접적으로 피부와 두피에 물 입자를 분사해 피부 부위를 세정하거나 영양 물질 화장수를 도포하여 모공청소, 각질제거, 미백, 여드름, 그리고 턱선과 눈가에 주름개선 및 탄력에 효과적이며 얼굴에 축적되어있는 유해한 독소를 제거해주는 최신장비입니다.

✓ **바디** 전신마사지 서비스도 있습니다.



www.lohanskin.com

양/한방 협력 진료 Free Clinic

NEW PATIENT ONLY

2월14일 두번째, 목요일 !!

척추 교정, 침, 한약

만성 통증, 교통사고 "한방"으로 해결!!

816-444-1218

척추신경의 홍성민

한의학사 김일형

신학기 Special !! 학생 무료 건강 상담 !!

KC CALENDAR OF EVENTS

Feb 5: Lunar New Year

Feb 7: HEARTS FOR ART:
Feb 7-14, Kemper Museum
of Contemporary Art, 4420
Warwick Blvd, Kansas City,
MO 64111

Feb 8: KC REMODEL +
GARDEN SHOW: Sunday,
Friday, Saturday, February
8-February 10, American
Royal Center, 1800 Genes-
see St., Kansas City, MO
64102

Feb 9: KANSAS CITY
BREW FEST: From: 2:00
pm to 05:00 pm, Union
Station Kansas City, 30 W
Pershing Rd., Kansas City,
MO 64108

Feb 9: HARLEM GLOBE-
TROTTERS: From 07:00
pm, Sprint Center, 1407
Grand Blvd., Kansas City,
MO 64105

Feb 10: 캔사스시티 한인회 정
기총회: Start 03:00 pm, 7800
Shawnee Mission Pkwy,
Mission, KS 66202

Feb 12: I LOVE YOU VER-
DI MUCH: Starting: 06:00
PM, Kauffman Center for
the Performing Arts, 1601
Broadway Blvd., Kansas
City, MO 64108

Feb 14: Valentine's Day

Feb 16: PAW PATROL
LIVE! "THE GREAT PI-
RATE ADVENTURE" : Feb
16-17, Kansas City Con-
vention & Entertainment
Facilities, 301 W 13th St.,
Kansas City, MO 64105

Feb 16: SESAME STREET

LIVE! LET'S PARTY:
Sprint Center, 1407 Grand
Blvd., Kansas City, MO
64105

Feb 17: PETER AND THE
WOLF, LIVE!: Starting:
02:00 PM, Kauffman Cen-
ter for the Performing Arts,
1601 Broadway Blvd., Kan-
sas City, MO 64108

Feb 19: SOUNDS RELAX-
ING: REFRESH: Starting:
06:30 PM, Kauffman Cen-
ter for the Performing Arts,
1601 Broadway Blvd., Kan-
sas City, MO 64108

Feb 20: 2019 Asian Cham-
ber's Tax Luncheon!:
11:30 a.m. - 1:30 p.m.,
UMB 1010 Grand Boulevard,
Kansas City, MO 64106

Feb 22: 2019 WESTERN
FARM SHOW: Sunday, Fri-
day, Saturday, Feb 22-24,
9am-5pm, Fri-Sat; 9am-
4pm, Sun., American Royal
Center, 1800 Genessee St.,
Kansas City, MO 64102

Feb 22: 59TH ANNU-
AL O'REILLY WORLD OF
WHEELS: Sunday, Fri-
day, Saturday, Feb 22-24,
3-10pm, Fri; 10am-10pm,
Sat; 10am-6pm, Sun. Kan-
sas City Convention & En-
tertainment Facilities, 301
W 13th St., Kansas City, MO
64105

March 1: 3.1 절 100주년 기
념행사: Starts at 01:30 pm,
Emmanuel Baptist Church,
10100 Metcalf Ave, Over-
land Park, KS 66212

◆ 목차 / READER'S GUIDE

◆ 커뮤니티 / COMMUNITY	PG 6-11	◆ 스포츠 / SPORTS	PG 24-25
◆ 캔사스 소식 / LOCAL NEWS	PG N/A	◆ 웰니스 / WELLNESS	PG 12-15
◆ 세계 뉴스 / WORLD NEWS	PG 16-17	◆ 문화 와 생활 / LIFESTYLE	PG 26-27
◆ 사업 / BUSINESS	PG 20-21	◆ 믿음 / FAITH	PG 28-29
◆ 디렉토리 / DIRECTORY	PG 18-19	◆ 무료 광고 / CLASSIFIEDS	PG 30-31
◆ 경제 / ECONOMY	PG 22-23		

◆ 일반 및 광고 연락처 / GENERAL AND ADVERTISING CONTACT

Email: kim@kckoreanjournal.com Phone: 913-802-2005
ONE.FIVE Media LLC : Kansas City Korean Journal

(여러분의 광고를 소중히 여깁니다. 캔사스의 유일한 한인신문
KCKJ로 연락주세요. 한인특별가로 모십니다!)

편집자 주 / EDITOR'S NOTE

- 모든 칼럼의 영어 또는 한국어 번역본은 요약본이며, 외부필자의 원고는 신문사 편집방향과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All translations of the columns are done in summary form. The opinions, beliefs, and viewpoints expressed by the contributing writers may not reflect the opinions, beliefs, and viewpoints of KCKJ.
 - Korean Translator and Editor: Chaeyoung Kang
-
- 캔사스시티 코리아 저널의 (연합 뉴스)로 표기된 모든 기사의 발신지와 저작권자는 연합뉴스이며, 무단전재나 재배포를 절대 금합니다.
 1. 연합 뉴스 - (기사발신지=연합뉴스)
 2. 저작권문구 <저작권자 (C) 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The source and copyright holder of all articles marked as Associated Press (AP) in Kansas City Korean Journal is AP News(AP), reprinting or distributing without permission is strongly prohibited.
 1. AP - (Article Source Reuters)
 2. The copyright notice <copyright (C) AP All Rights Reserved - Copyright by>
 - 마감일을 넘겨오는 기사나 광고는 부득이하게 다음호로 넘겨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 저희 신문의 수정 사항을 언제든지 알려주십시오. 여러분의 지적을 귀하게 받아 더욱 발전하는신문이 되고자 합니다.
보내실곳은 kim@kckoreanjournal.com 입니다. 감사합니다.
If you find any information in error, please direct them to kim@kckoreanjournal.com Thank you.

JOHNSON COUNTY COMMUNITY COLLEGE CHINESE NEW YEAR CELEBRATION



경험많은 셰프가
일식 전통과 튜진이 어우러진
코스 요리를 서브 합니다
예약 913.258.5879
단체예약 받습니다



주방에서 일하실분 구합니다



Lunch
Mon-Fri 11:30-2:30pm
Sat & Sun 12-3pm
Dinner
Mon-Thur 4:30-9pm,
Fri 4:30-10pm
Sat 3-10pm
Sun 3-9pm
Happy Hour
Mon-Fri 4:30-6pm
Sat & Sun: 3-5pm

Prairie Fire 5621 W. 135th St. Suite 2620
Overland Park, KS 66223
www.marusushikansas.com 913.258.5879

우리 이사 갑니다!!

Soo Hair

Great Cut



- 디지털펌
- 셋팅펌
- 헤어컷
- 염색
- 예쁜머리
- 건강한 머리

시간:

월: 예약제
화-금: 10시 아침 - 7시 밤
토: 9시 아침 - 6시 밤
일: 1시 오후 - 6시 밤

전화번호: (913) 341 - 5265

장소:

**10312 Metcalf Ave
Overland Park, KS 66212**



캔사스시티 한인회 주관 캔사스지역 한인역사연구 모임을 다녀와서

지난 2019년 1월 3일 캔사스시티 한인회 주관으로 역사연구 모임이 열렸다. 돌아오는 2019년 삼일절 100주년을 바라보며 뜻을 같이 한 분들이 함께 모여 캔사스지역 한인 정착의 역사를 알아보고, 캔사스 지역에 살았거나 발자취를 남겼던 한인들의 역사를 재조명해보는 역사 모임의 자리였다.



여 캔사스시티에 한인 역사를 찾아 보았다고 하였다. 네브라스카 소년병 학교 관련 자료를 모으며 시작된 안맹호 목사의 한인역사 연구는 7년 가까이 긴 시간에 걸쳐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였다고 한다. 캔사스시티 한인의 역사를 연구하며 보인 안맹호 목사의 노력에 필자는 뜨거운 감동을 받았다. 안맹호 목사에게 의하면 1910년 이전 한국을 찾은 선교사들의 영향으로 1910년경 캔사스지역에서도 한인들의 발자취를 찾을 수 있었다고 한다. Park University 자료를 찾던 중 여러 명의 한인 이름을 찾기도 했다고 하였다. 1915년 Park University 졸업자 명단에 처음으로 한인 이름이 나와있기도 했다고 한다. 한동안 한인들이 미국의 가장 중심에 있는 캔사스지역에 정착을 하기도 했으나 1924년 미국의 이민법이 생겨나며 한인의 이민에 맥이 끊어지기도 했다고 말했다. 특히 안맹호 목사는 한인 역사연구는 캔사스지역의 우리 한인들의 뿌리를 찾는 것이라고 말했다.



안경호 한인회장은 한일합방으로 일본에 나라를 빼앗겼던 우리 선조들이 먼 이국땅 캔사스지역에서도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애쓰셨던 분들이 계셨다는 말과 함께, 우리의 역사를 돌아보면 캔사스지역을 거쳐간 여러 선조들이 있었으나, 역사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며 ‘삼일절 100주년을 바라보며 미국의 중심부 캔사스지역에서 우리 선조들의 발자취를 찾아보자’는 한인 역사연구 모임의 취지를 알렸다.

안맹호 목사는 선교를 하며 개인적인 관심사에서 시작하

송세준교수는 한국의 독립을 위하여 애쓰셨던 대표적인 여성독립운동가 김마리아씨도 1924년 6월부터 2년간 Park University에서 유학을 했었다며 관련 자료를 찾아보고 싶다고 하였다. 무엇보다 100주년 삼일절을 기념하여 미국의 주류사회에서도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캔사스 한인역사 자료를 찾아 미디어매체에도 알리자고 하였다.

박사무엘 교수는 2019년의 삼일절 100주년 행사는 한인들만의 행사로만 끝나지 않도록 여러 자료를 같이 연구하여 비폭력 운동이었던 삼일운동을 재조명 하는 해로 좀 더 의미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스스로 이번 모임에 같이 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한국에서도 삼일절 100주년 기념 관련하여 국민청원에 글이 올라 온 것을 보았으나, 국민들의 관심이 적었다며 오늘날은 삼일절의 의미가 점점 더 약해지는 것이 안타깝다고 하였다. 비폭력 저항운동을 했던 간디나 마틴루터킹의 사례처럼 삼일운동 또한 비폭력 저항 운동이었다며 학술적으로 좀 더 자료를 찾아보면 좋겠다고 하였다.



박성창교수는 fellowship에 초점을 맞춰보자고 하였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정치판을 바꿨던 국민들의 촛불집회처럼 삼일운동도 국민들이 스스로 참여하며 만들어진 비폭력 민족 저항운동이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춰보자고 하였다.

서현진 교수는 주제를 선정할 때, 듣게 되는 대중을 (한인 사회 또는 미국의 주류사회) 생각해서 연구 포커스를 두고 주제를 정해야 한다고 하였으며, 이제중교수와 서현진 교수는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이 함께 하며 연구의 폭을 점차 늘려보면 좀 더 다양한 주제로 연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캔사스시티 한인회 주관 캔사스지역 역사 연구모임은 삼일절 100주년을 기념하며 뜻을 같이 한 사람들이 모였으나, 장기적으로는 계속 캔사스지역의 한인들 역사를 연구하며 지속적 모임을 가지고 캔사스 한인들의 이민역사와 발자취를 함께 연구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참석자 명단: 안경호 캔사스시티 한인회장), 박사무엘 센트럴 신학대학교수, 안맹호 목사 (미국 원주민 선교사), 송세준 UMKC교수, 박성창 센트럴 신학대학교수, 이제중 UMKC교수, 서현진 KU교수, 박상엽 와시번대학 교수, 손정화 안일 장학재단 총무, 박소영씨, 안향미 캔사스시티 보도위원

기사/사진: 캔사스시티 한인회 보도위원 안향미



캔사스시티 한인회

3.1절 100주년 기념행사

3.1절 100주년 기념 세미나

일시: 2019.3.1 1:30pm

발표: 박사무엘 교수(Central Seminary)

송세준 교수(UMKC)

안맹호 목사(미국원주민선교사)

서현진 교수(KU)

3.1절 100주년 기념식

일시: 2019.3.1 4:00pm

3.1절 기념식

한국학교 3.1절 100주년

사생대회 시상 및 전시회

안산시립 합창단 특별공연

일시: 2019.3.1 5:45pm

3.1절 100주년 기념공연

단장: 이진찬 지휘자: 박신화

반주자: 김민옥, 박은화



장소: Emmanuel Baptist Church
10100 Metcalf Ave. Overland Park, KS 66212

문의: 캔사스시티 한인회 사무총장 이주현 913.220.3021 합창공연 준비 위원장 조영애 913.749.8384



안산시립합창단의 삼일절 100주년 기념 캔사스시티 특별공연

캔사스시티 한인회에서는 다가오는 2019년 3월 1일 임마누엘 교회 (Emmanuel Baptist 101th Metcalf)에서 삼일절 100주년 기념행사를 할 예정이다. 이번 삼일절 기념 행사에는 특별히 안산시립합창단 (단장: 이진찬)의 축하공연이 준비되어 캔사스시티 한인동포들에게 세계 수준의 멋진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르네상스에서 고전, 그리고 현대음악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레퍼토리와 독특한 챔버 스타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안산시립합창단은 1995년 창단 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전문 합창단으로, 세계합창연맹(IFCM)이 뽑은 세계22개 합창단 중 하나로 선정되었고, 2002년 8월 미국 미네아폴리스에서 개최된 세계합창 심포지움에 초청되어 연주회를 가지기도 했다. 이 연주에서 안산시립합창단은 세계를 놀라게 하였고, 참가한 22개 합창단 중에서 최고의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하였다.



2011년 6월 바티칸 교황청으로 부터 초청을 받아 성 베드로 대성당에서 연주를 가지며, 현지인 뿐만 아니라 성베드로 대성당을 방문한 전 세계인들에게 안산시립합창단과 한국의 높은 합창 수준을 알렸다.

2012년 3월 미국시애틀에서 개최된 2012 NWACDA 컨퍼런스에 독일 슈투트가르트 챔버합창단과 함께 공연하였는데, 전원 기립박수를 받으며 성황리에 공연을 마쳤다. 그 결과 안산시립합창단은 2015년 미국 Salt Lake City에서 개최된 2015 ACDA National Conference (미국합창협회 전국모임)에 전 세계에서 모인 5000여명의 합창지휘자들에게 최고의 연주를 선보이며 세계적인 합창단으로 인정받았다.

2017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최한 제11회 세계합창심포지움에 한국을 대표하여 초청받아 높은 예술성과 독창적인 합창을 전 세계인들에게 알려 안산시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예술성을 각인 시키는 감동적이며 성공적인 공연을 가졌다. 또한 스페인 세계합창심포지움 초청공연을 한국관광객들에게 시연하는 무대를 서울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가졌는데, 이 공연이 2017년 제4회 예술의전당 예술대상 성악합창부분 최우수상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누리기도 하였다.

안산시립합창단은 2019년 미국 캔사스시티 (Kansas City)에서 개최되는 2019 미국합창지휘자협회 (ACDA: American Choral Directors Association) National Conference에 초청받아 2019년 2월 26일부터 28일까지 캔사스시티 무리엘 카우프만 (Muriel Kauffman) 극장에서 공연일정도 잡혀있다.

이번 2019년 3월 1일 임마누엘 교회에서 열리는 캔사스시티 한인회 주관 삼일절 100주년 기념 안산시립 합창단의 특별공연은 안산시립 합창단 박신화 지휘자와 조영애 캔사스시티 한인회 삼일절 공연 준비위원장의 인연으로 캔사스시티 한인동포들과의 멋진 만남의 시간이 마련되었다고 한다. 캔사스시티 한인회 주관 삼일절 100주년 기념행사에는 한인동포 누구나 참석 가능하니, 음악을 사랑하는 캔사스시티 한인동포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해 본다.

단장: 이진찬 / 반주자: 김민옥, 박은화
지휘자 소개: 박신화 Dr. Shin-Hwa Park, director

- 연세대 및 동 대학원 졸업
- 미국 콜로라도 대학원 졸업 (합창지휘학 박사)
- 국립, 서울시, 부산, 대전, 광주, 수원, 성남, 원주, 익산, 청주, 춘천, 제주시립,
한국남성, 프리모칸판떼, 프리마돈나 앙상블 등 객원지휘
- 2002, 2014, 2017 세계합창심포지움에서 지휘
- 2003, 2006, 2012 몬타나 국제합



창페스티벌 지휘

- 2004 제1회 올림예술대상, 2004 안산문화상
- 2007 한국음악상(본상)수상
- 2014 세계합창심포지움(IFCM) 예술위원
- 2015 미국합창지휘자협회(ACDA) National Conference

지휘

- 한국합창총연합회 및 한국합창지휘자협회 이사장 역임
- 연 50여회의 음악세미나 및 50여회의 합창연주 지휘
- 100장의 합창 CD출반 · 저서: 합창에 관한 질문과 응답, 합창문헌 II

현재) · 안산시립합창단 상임지휘자

- 영락교회 갈보리 찬양대 지휘자
- 이화챔버콰이어 지휘자
- 극동방송 '성가 산책' 진행자
- 세계합창올림픽 한국대표 심사위원
- 한국합창총연합회 명예이사장
-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3.1절 100주년 행사를 맞이하여

어린 시절 만세 삼창을 제일 크게 외칠 때가 언제냐고 묻는다면 당연히 3.1절 아니면 광복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국을 떠나 먼 미국 땅에서 살면서 바쁘고 힘든 생활 중에서도 1세대들이 3.1절이나 광복절을 기념하는 것은 우리가 후손들에게 가리켜야 할 잊어서는 안되는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3.1절 100주년 행사를 준비하면서 캔사스시티 한인 동포와 3.1절 운동과의 관계를 새롭게 접하게 되면서 벌써 100여 년 전에 이곳 캔사스시티에서 조국의 독립을 위하여 헌신하셨던 캔사스시티 한인 동포사회의 선구자님들의 발자취를 더듬어 가면서 캔사스시티 한인 동포사회의 역사를 재조명할 수 있게 함께 하시는 모든 분께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100주년 행사에는 한국학교 학생들에게 정체성 교육을 위해 사생대회를 개최하고 캔사스지역에 계시는 한인 교수님들의 3.1절 운동 100주년 기념 세미나 그리고 3.1절 기념식 안산시립합창단의 3.1절 운동 100주년 기념 공연 등으로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동포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고 한인 동포사회의 선구자님들께서 이루어 놓으신 위대한 이민 역사가 세세토록 승계될 수 있도록 우리들은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교육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하며 동포사회 모두가 최선을 다하는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캔사스시티 한인회
회장 안경호

기사: 캔사스시티 한인회 보도위원 안향미

사진: 안산시립 합창단 제공

한인회 도네이션 명단	
안경호	\$10,000.00
Asian-American Chamber of Commerce	\$1,500.00
Assi	\$1,100.00
초가	\$1,000.00
왕희철	\$960.00
상록회	\$500.00
Viva fashion	\$500.00
고 박세연 회장 가족	\$500.00
김성배	\$500.00
장영준	\$500.00
배규태	\$440.00
문현자	\$350.00
안성호	\$335.00
김봉석	\$300.00
김호원	\$300.00
베델 장로 교회	\$200.00
제일 장로 교회	\$200.00
박병관	\$200.00
Scott An	\$200.00
Thomas Lee	\$200.00
양영승	\$200.00
Lee Ok Shotts	\$200.00
임마누엘 감리 교회	\$150.00
이주현	\$150.00
정기호	\$110.00
독고영식	\$100.00
이경남	\$100.00
김광묵	\$100.00
김춘윤	\$100.00
LG	Headset, 전화기, TV
중부시장	압력밥솥 2개
\$100 이하 도네이션 명단	
총 금액:	\$508.00
유갑무, 나눔의 교회, 김정원 은영영, 최병연, 천우선&천창호, 윤성재, 무명(\$153.00)	
도네이션 TOTAL:	\$21,503.00

한인회 회비 내신 분들 명단			
김수환	김석환	천우선	천창호
안진성	John Doawson		이주현
데니스 조	차미화	박순현	김현영
조영애	정영로	안성호	이영일
김봉석	김성배	위우석	김준수
최성용	윤정재	정원화	유갑무
은영영	지형준	김경민	이아룡
김상아	김한석	최성오	윤태석
Chung Yun	권수연	정지훈	전인성
김성	하오령	박진숙	조정남
J Kim	임소연	김시연	임은경
한경완	장린옥	임명찬	신혜승
강미영	박영자	조은경	김정원
주은온	정태경	황민정	왕희철
독고영식	이경남	양혜연	안경호
오명순	최병연	박귀우	안승철
안승민	안향미	박선희	정판조
김다위	이향경	김도준	장영준
김호원	최성숙	배규태	문현자
박병관	Scott Ahn	Thomas Lee	양영승
이옥순	정기호	김광묵	김춘윤

회비는 가족당 \$20.00
독신은 \$10.00

도네이션을 \$100 이상 하신 분은 자동으로
한인회비를 납부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한인회비 보내실 곳
10409 Marty Ave, Overland Park, KS 66212



2019년 캔사스시티 한인회 신년 하례회

2019년 1월 5일 캔사스시티 한인회의 신년 하례회가 안디옥 교회에서 열렸다. 제32대 캔사스시티 한인회가 출범하고 처음 맞이한 2019년 기해년 새해에, 캔사스시티 한인회와 각 기관단체장들, 그리고 한인동포들이 자리를 함께 하였다.



안경호 회장은 신년사에서 한인 동포들에게 새해 인사를 전하며, 신년 하례회 자리를 제공해 주신 안디옥 나사렛 교회 이은철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께도 감사를 전했다.



안경호 회장은 2018년 동포사회가 어려운 속에서도 한 해를 무사히 잘 넘겼다고 생각한대며, 2018년 8월 26일 제32대 캔사스한인회가 재출범한 후 '새롭게 출발한 캔사스시티 한인회 기금마련을 위한 일일식당'에 전례없이 많은 한인동포들이 참석해 주시며 캔사스시티 한인회를 응원해 주셨던 것과, 연말송년회에도 자리가 부족할 정도로 많이 참석해 주시며 힘을 보내주셨던 동포사회에 다시 한번 감사인사를 전하며 2019년 기해년 캔사스시티 한인회는 더욱 힘을 받아 동포사회에 더 많이 봉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안경호회장은 2019년에는 서로 배려하는 동포사회가 되었으면 한다는 바람을 전했다. 동포사회가 밝아지고 분위기가 좋아지려면 서로 배려하는 문화가 중요하다고 말하며 캔사스시티 한인회도 배려 문화가 동포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출선 수범하여 같이 행동하고, 최선을 다하여 동포사회를 열심히 섬길 것이라고 말했다. 캔사스시티 한인회가 올 한해도 힘차게 출발할 수 있도록 동포사회의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김성배 한인회 이사장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희망찬 2019년을 맞았으면 한다는 새해 인사와 함께 한인동포들에게 화합과 단결의 부탁 말을 전했다.



김성배 이사장은 캔사스시티 한인회가 안경호 회장과 함께 놀라운 성과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캔사스시티 한인회는 한인들을 대표하는 단체로, 열악한 환경에서도 캔사스시티 지역사회에 한인들의 목소리를 내도록 있는 우리들의 대표단체라고 말했다. 캔사스시티 주류 사회와 상호 협력관계로 나가려면 한인 동포사회가 화합 단결하여 다 함께 참여하고 실천할 때 이루어 질 것이라고 말하며, 한인 동포사회가 캔사스시티 한인회에 무관심 보다는, 벽을 과감히 허물어 버리고 관심과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안경호회장은 다가오는 삼일절 100주년을 맞아 캔사스시티 한인회에서도 삼일절 100주년 기념행사를 할 것이라고 말하

며 조영애 준비위원장 (음악 공연)에게 위촉장을 전달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어지는 순서로, 각 기관단체장들의 신년 계획 발표가 있었다. 캔사스시티 한인회, 캔사스시티 연합성가단, 캔사스시티 대한 노인회, 캔사스시티 한인 문화 회관, 캔사스시티 한국학교, 재미대한장애인체육회, 재미대한캔사스체육회, 캔사스시티 한인상공회, 캔사스시티 목회자 협의회의 각 기관단체장들의 신년계획 발표와 함께 케익 컷팅의 시간도 가졌다. 각 기관단체장들은 한마음 한 뜻으로 모두 함께 손을 모아 케익을 자르며 2019년 새해부터 캔사스시티 단체장들의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었다.



캔사스시티 신년 하례회가 끝나고 모두 함께 캔사스시티 한인회와 안디옥교회 여선교회에서 준비해 준 따끈한 떡만두국도 먹고, 새해 덕담도 나누며 즐거운 오찬시간을 가졌다.



이번 2019년 캔사스시티 신년 하례회에는 캔사스시티 한국학교에서 학생들의 작품전시 및 교사 교육안 전시도 하여 참석한 한인동포들의 눈길을 끌었다.



캔사스시티 신년 하례회는 캔사스시티 한인회를 비롯하여 각 기관 단체장들과 한인동포들을 포함한 80여명의 참석자들이 함께 하며 2019년 기해년 힘찬 출발을 준비한 뜻 깊은 자리 가 되었다.

캔사스시티 한인회 웹사이트 안내:
www.kckorean.net
 캔사스시티 한인회 facebook 웹사이트 안내:
www.facebook.com/kasofgkc

기사/ 사진: 캔사스시티 한인회 보도위원 안향미



Dr. Hong 의 뼈과 근육 이야기 : 목통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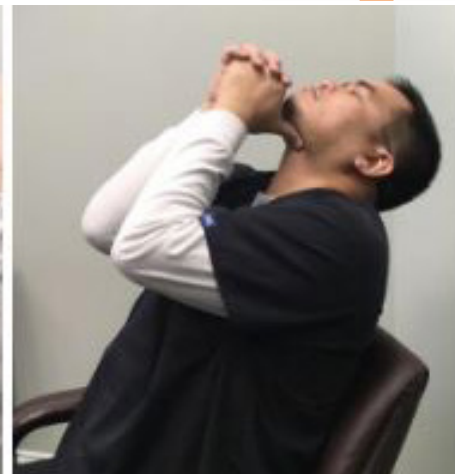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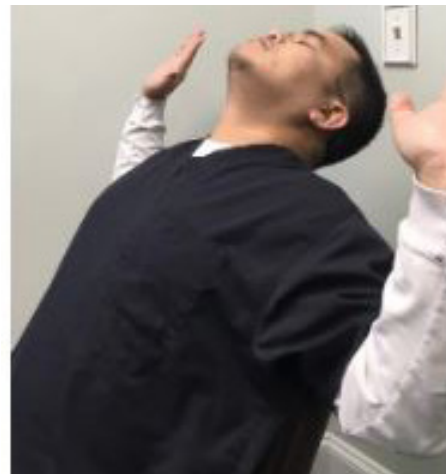
필자가 어린 시절에 방과 후면 동네 놀이터에 모여 저녁 전까지 친구들과 놀았던 기억이 있다. 그러다 저녁에 되면 어머니가 이제 들어와 씻고 밥 먹으라고 부르셨다. 그 당시 우리는 밖에서 많이 뛰고 손에 흙 묻히며 놀았다. 그런데 지금 아이들은 주로 TV를 보거나 태블릿 게임하고 노는게 더 보편화 되었다. 밖에서 뛰며 놀며 근육이 단련되어 자연스럽게 유연성이나 민첩성을 기를 수 있던 때와는 달리 이제는 따로 시간과 돈을 들여 운동을 시켜야 하는 때가 됐다. 이것은 어른들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러한 생활 습관은 현대인의 질병과 연결이 된다.

그 가운데 많이 나타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목통증이다. 목통증으로 이어지는 '거북목', '일자목'과 같은 단어들은 이제 일반인들에게도 생소하지 않다. 커피 전문점에 앉아 스마트폰을 테이블에 놓고 SNS를 즐기는 청년들, 장소 불문하고 스마트폰으로 게임하는 학생들의 자세, 특히 목의 자세를 한번 자세히 보라. 하나같이 '일자목'이다. 아래에 있는 것을 고개를 숙여 내려다보면 정상적인 자세인 경추 전만 (C자 커브)이 무너지면서 일자목이 된다. 이런 상태를 오래 지속하면 목의 근육들이 경직되어, 두통과 관련된 현상이 나타나고, 혈액 순환이 더디게 되며 심할 경우에는 디스크가 상하는 상황까지 이를 수 있다.

거북목은 특히 오랜 시간 책상에 앉아 일하는 직업인들이나 학생들, 컴퓨터 사용자에게서 자주 볼 수 있다. 대부분 이들이 오랜 시간 취하게 되는 자세는 목을 앞으로 쭉 빼고 머리는 모니터를 향해 치켜드는 자세다. 머리를 치켜들기 위해 목덜미 근육은 더 강한 힘을 써야 하고 그 힘이 고스란히 목 디스크를 압박해 손상을 가한다. 좋지 않은 자세를 오래 지속하는 습관은 이렇게 일자목과 거북목이라는 결과로 이어진다. 이대로 방치하면 목 디스크 탈출증 (Disc Herniation)으로 인한 극심한 통증을 겪게 된다. 처음에는 목과 어깨죽지가 빠근하고 육신거리다 나중에는 견갑을 수 없는 저림현상의 통증이 팔과 머리에까지 온다. 이를 한 번이라도 겪은 사람은 목을 움직이지 못하는 고통을 오래 기억한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사용 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이든 고개를 숙이는 자세를 오래 지속하는 것은 목 디스크 손상과 연결될 수 있다. 높은 베개를 베고 눕거나 머리를 벽에 기대어 목을 앞으로 꺾은 채로 TV보는 것 역시 무척 해롭다. 자신의 목덜



미 근육이 수축하지는 않지만 외부의 힘으로 목을 구부리는 것만으로도 목 디스크는 손상될 수 있다. 고개를 숙여서 디스크에 압박을 가하면 경추 전만 자세로 힘을 받을 때 보다 반 정도의 힘만 쥐도 디스크가 손상된다. 실제로 안좋은 자세로 오래 앉아 있는 이들은 허리통증으로 고생하는 경우도 많은데 허리통증은 다음에 다루기로 한다.

거북목과 일자목은 목 디스크를 유발할 수 있는 나쁜 자세지만, 반대로 목 디스크가 손상된 결과로 이렇게 자세가 나빠지는 경우도 있다. 상태가 심각해지면 고치기 어려워진다는 의미기도하다. 그러면 경추 전만을 회복하는 좋은 자세는 무엇일까?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화면을 볼 때 허리를 꼳꼳이 하고 화면을 높이 두어 눈높이와 같게 하고 고개를 되도록 뒤로 기대어 목이 앞으로 쏠리지 않게 한다. 다시 말해 허리와 목을 꼳꼳이 하라는 이야기다. 경추 전만, 즉 C자 커브가 되어야 앉아 있거나 서 있을 때 머리의 무게가 목뼈의 중심을 지나게 되어 목 디스크에 걸리게 하는 압력이 줄어든다. 그리고 한 자세를 오래 유지하는 것보다는 한 두 시간에 한번씩 몸을 움직여 근육을 부드럽게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필자는 오랜 시간 앉아있는 자세로 인한 목통증으로 내원하는 환자들에게 반드시 목extension 스트레칭을 권한다. 순서는 다음과 같다.

1) 허리를 꼳꼳이 하여 허리의 커브를 만든다 (의자의 뒤끝에 깊숙이 앉아 허리를 기대는 것이 좋음).

2) 가슴을 활짝 열어 양쪽의 어깨뼈 (견갑골)를 가운데로 모은다. 턱을 조금씩 치켜들면서 목을 천천히 뒤로 젖힌다. 양쪽 손을 모아 엄지로 지긋이 뒤로 젖힌 턱을 살짝 누르는 것도 좋다.

3) 목통증은 일상에서 바른 자세와 스트레칭만으로도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 물론 지속적인 통증이 심해지고 차도가 보이지 않을 때는 전문의와 상담하고 그에 맞는 치료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 목통증 치료는 뼈나 디스크가 심하게 손상되어 수술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수술적 치료로 충분히 회복될 수 있다. 익숙한 통증이기에 곧 괜찮아지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보다는 전문의와 상담 후 치료를 받는 것이 빠른 회복을 얻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길이다.



정상

일자목

역C

거북목



Lohan Chiropractic and Acupuncture Clinic

척추 신경 전문의 홍성민

816-444-1218

2019년도 캔사스시티 한인회 정기총회



일시: 2019년 2월 10일 (일요일 오후 3시)

장 소: 캔사스시티 한인회 사무실
안 건: • 2018년 사업 및 결산보고
• 2019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승인
• 기타 안건

참석대상: 캔사스시티 한인회 정회원 (32대 한인회비 납부자)

참고사항: 총회당일 납부하여도 정회원으로 인정됨

연락처: 이주현 사무총장 (전화번호: 913-220-3021)
7800 shawnee Mission Pkwy: Ste16 , Merriam, KS 66202
www.kckorean.net



통합 의학,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가 제 2형 당뇨병 환자를 개선할 수 있다 INTEGRATIVE MEDICINE, LIFESTYLE CHANGES CAN HELP PATIENTS REVERSE TYPE 2 DIABETES

미 국 내 건강 문제로 당뇨병이 급증하고 있다.

질병 통제 및 예방 센터에 의하면 30년 전 약 650만명에 그치던 당뇨병 환자 수는 현재 2천 5백만명에 달하며, 당뇨병 전증의 환자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인구를 포함하면 당뇨가 수천만의 인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셈이다. 또, 적합한 시기에 치료가 진행되지 않으면 당뇨로 인한 실명, 신장 문제, 신경 손상이 유발될 수 있으며, 심장 발작과 뇌졸중의 위험도 두 배로 높아진다. 즉, 당뇨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치료는 건강한 삶에 필수적이다.

당뇨병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각 유형은 인슐린과 연관된 신체 반응에 따라 분류된다. 인슐린은 호르몬의 한 종류인데, 체내에 필요한 주 에너지원인 포도당의 양을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혈당량이 적정선을 벗어날 경우 신체에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인슐린은 아주 중요하다.

자가 면역 질환인 제 1형 당뇨병은 신체가 자연적으로 충분한 양의 인슐린을 생산하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 유형은 젊은 환자를 상대로도 발생할 수 있으며 아직까지 그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제 1형 당뇨병 환자는 일반적으로 정기적 인슐린 주사를 이용한다.

제 2형 당뇨병은 체내에서 인슐린에 대해 저항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초기 제 2형 당뇨병 환자의 체장은 신체가 필요로 하는 것보다 많은 인슐린을 생산한다. 그러나, 당뇨병이 점차 진행되면서 체장이 더 이상 충분한 인슐린을 만들지 못하는 수준에 도달하면 혈당이 위험한 수준으로 치솟는다. 이 유형의 당뇨병은 주로 비만과 관련이 있으며, 불량한 식습관 및 신체 활동 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다.

다행히도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니다.

“김윤항 의학 박사에게 의하면 일반적으로 생활 습관 치료를 통해 제 2형 당뇨병은 개선이 가능하다”고 캔자스 대학 보건 시스템의 John Kim 의사는 말한다.

전통적인 의학에서는 제 2형 당뇨병을 앓고있는 환자에게 인슐린을 원활하게 생산하거나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약물을 권장해왔다. 그러나, 이 방법을 사용하는 환자들은 해당 약물에 대한 내성이 생길 수 있고 결국 인슐린 주사에 의존하게 된다. 김 박사는 제 2형 당뇨를 개선할 수 있는 대안책이 있다고 말한다. 이는 바로 식이요법을 개선하는 방법이다.

김 박사는 “장기적인 목표는 체중 감량과 근육 강화입니다. 적절한 식습관이 먼저 구축되고 나면 운동이 따라주어야 합니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뇨병으로 진단 받은 지 오래되지 않은 환자를 상대로는 설탕과 탄수화물의 섭취를 줄이라고 권고한다. 가공 식품 및 설탕 섭취를 줄인 환자들은 긍정적인 증상의 변화를 경험하기도 하는데, 이것이 질병 그 자체를 뒤바꾸는 첫 번째 단계이다.

환자들의 탄수화물과 설탕 섭취가 줄어들면 김 박사는 환자들에게 지속 가능한 식단을 찾도록 권유한다. 캔자스 대학 건강 시스템의 비만 클리닉 또는 저탄수화물 라이프 스타일 등은 지속 가능한 식단을 찾는 데 좋은 출발점이 된다.

운동만으로 체중 감량을 감행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식습관의 변화는 필수적이다. 애플라치아 산맥을 등반하거나 세계적인 스포츠 경기인 투르 드 프랑스에 참가하는 등의 고강도 운동을 제외하고는 식단 조절이 체중 감량에 더 효

과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활발한 신체 활동은 단순한 체중 감량 뿐 아니라 근육을 발달한다는 의의를 가지고 있다. 이어 김 박사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근육 발달은 궁극적으로 당뇨로 인한 인슐린 저항성을 제지하고 체중 조절에 도움을 주어 당뇨 환자에게는 큰 이득이 됩니다. 더 기다리지 마십시오. 근육 발달은 건강에 필수적입니다.”

스트레스는 현대인들의 체중을 증가 혹은 감소시키는데, 명상이나 태극권과 같은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관리하면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다.

앞서, 생활 습관의 변화는 제 2형 당뇨병 치료에 오랜 기간 적용되어 왔다. 저명한 의학 서적에 의하면 1922년 최초로 인슐린이 당뇨병 환자에게 처방되기 이전까지는 탄수화물을 섭취하지 않는 방식으로 당뇨 환자들이 수명을 연명했다고 한다. 거의 1 세기가 지나 당뇨병 비율이 전염병 수준으로 급상승하는 현재, 김 박사는 저탄수화물 식습관이 다시 한 번 간주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Diabetes, as a health problem in the United States, is surging.

Thirty years ago, about 6.5 million Americans had been diagnosed with diabetes, according to the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Today, we're on pace to hit 25 million, with many more Americans classified as prediabetic and millions of others who don't yet know they're at risk.

Left untreated, diabetes can cause blindness, kidney problems, nerve damage. It can also double your risk of heart attack and stroke. If you have it, you need to know. You need to act.

Diabetes has two distinct types. Both involve different reactions to insulin, the hormone that regulates the amount of glucose in the bloodstream. Our bodies need glucose. It's our primary source of energy. But not having the right amount of it can also cause

serious problems.

Type 1 diabetes, an autoimmune disease, is where the body simply doesn't produce enough insulin. It often strikes people at a young age and its exact cause isn't fully understood. People with type 1 diabetes typically receive regular insulin injections to make up for their body's deficiency.

Type 2 diabetes is when your body develops a resistance to insulin. At first, this forces the pancreas to produce more insulin than your body needs. But eventually, the pancreas no longer makes enough insulin, causing your blood sugar to soar to dangerous levels. This type of diabetes correlates with obesity and is often the result of poor diet and insufficient physical activity.

Fortunately, making changes in those areas can help.

“Usually, with lifestyle medicine, we can reverse stages of type 2 diabetes,” said Yoon Hang “John” Kim, MD, of Integrative Health at The University of Kansas Health System.

He said in traditional medicine, people with type 2 diabetes are prescribed oral medication to help them secrete or process insulin better. Unfortunately, their bodies can develop a resistance to these medications. Many patients eventually require insulin injections.

Dr. Kim says there's an alternative, integrative approach that's been able to reverse type 2 diabetes in many cases. It uses food and exercise as medicine.

“Our long-term overall goal is weight loss and to build more muscle,” he said. “It's my opinion that food as medicine has to come first and then exercise as medicine shortly after.”

He encourages newly-diagnosed diabetics to pare down their sugar intake, starting by being more mindful of how many

carbohydrates they eat and becoming more aware of the hidden sugar in processed foods. Many patients who cut back will soon notice their symptoms getting better. It may be the first step in reversing the disease itself.

After guiding them to reduce their intake of carbs and sugars, Dr. Kim encourages patients to find sustainable diets, whether through The University of Kansas Health System's weight management clinic or low-carb lifestyles. He has had patients do well on a ketogenic diet and thinks more people should consider this option.

"It could be -- or should be -- one of the tools in the future to explore," he said.

"That's not the only tool, but that's one of the tools."

Dietary changes are essential because exercise alone is rarely enough to lose weight. With exceptions for extreme workouts, such as hiking the Appalachian Trail or riding in the Tour de France, our ability to eat exceeds our ability to burn it off.

Activity also doesn't just mean taking off pounds. It's important to add muscle, too.

"Ultimately, it's building up the muscles that conquer the insulin resistance and lowering of weight that also lowers insulin resistance," Dr. Kim said. "Don't wait, because the muscle buildup is crucial."

Stress tends to cause many people to gain -- or lose -- weight. Stress management techniques, such as meditation or tai chi, can help people keep their weight consistent during difficult times.

Lifestyle changes aren't a new way to treat type 2 diabetes. Before insulin was first used on patients with diabetes in 1922, the disease often had dismal outcomes. According to medical textbooks from that era, lifestyle changes involving the total avoidance of carbohydrates -- a ketogenic diet -- were among the few approaches that helped people survive longer.

Nearly a century later, with diabetes rates soaring toward epidemic levels, Dr. Kim believes this approach should be seen as an option once again.

To learn more about Integrative Health at The University of Kansas Health System, visit kansashealthsystem.com/integrative or call 913-588-6208.

The University of Kansas Health System
Yoon Hang Kim, MD
4000 Cambridge St.
Sudler, Suite 2053
Kansas City, KS 66160
913-588-6208

한방으로 보는 호흡기질환

얼마전 한 지인이 콧물감기로 시작된 호흡기질환으로 몇 주간이나 고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되었다. 시중에서 구입한 약이나 병원을 방문해 처방받은 약을 아무리 먹어도 전혀 차도가 없다는 것이었고 점차 기관지염으로 발전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 소식을 들은 나는 호흡기 질환을 따으로 빼는 방법으로 3일치 한약을 처방해서 전해주었고, 그 약을 먹은 지인분은 그렇게 오랫동안 본인을 괴롭혔던 호흡기 질환이 깨끗이 낫았다며 한약효과에 대한 놀라움을 표현하였다.

서양의학에서 감기란 바이러스가 호흡기를 통해 침투해 생긴 감염성 질환으로 보지만 한의학에선 인체의 생리기능이 바람과 온도, 습도 등의 외인성과 피로 및 스트레스 등에 영향을 받아 몸의 균형이 깨질때 감기가 걸린다고 본다. 이러한 이유로 대체로 감기를 복합질환으로 보고 해열제, 진통제, 항생제 등 양방에서 흔히 처방하는 약물치료로는 단지 증상을 가라앉히는 대증요법일 뿐 근본치료는 힘들다고 판단한다.

특히 몸이 허약한 사람이 감기에 걸렸을 때 양약제를 지나치게 투여하면 피로가 가중되고 소화기 장애가 나타나며, 감기가 기관지염이나 폐렴으로 악화할 수 있다.

환자들 입장에서는 가뜰이나 불경기에 감기 정도로 한의원에 가면 진료비, 처방비 등의 비용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 하지만 로한클리닉에서는 한방 감기 치료제를 \$30정도로 저렴하게 처방하고 있기 때문에 증상이 생기면 가능한 빨리 내원하여 상담을 받는 게 좋다.

콧물, 재채기, 근육통 등을 동반한 콧물 감기는 물론, 몸살감기, 편도선염, 인후부염증, 오한과 두통 및 전신관절통 등까지도 한약을 비롯한 침 시술로 치료가 가능하다.

콧물감기를 우습게 보았다가 증상이 진전되어 만성비염 및 알러지, 천식, 기관지염, 축농증으로 발전된 사례가 종종 있으며, 몸살감기로 항강부가 강직되어 몇 달이 지나도록 고생받는 사례도 많다. 발병 3일내에서 7일내에 치료 받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오래되었다 해도 참지 말고 치료받아 병을 키우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다.

한방과 양방의 접근은 이렇



게 달라도 예방법은 같다. 건강한 영양섭취와 휴식, 규칙적 운동과 알맞은 실내습도의 유지를 해야 한다는 것과 손을 자주 씻으며 몸을 청결히 할 것을 권한다. 긍정적인 생각으로 마음을 지키는 것은 덤으로 해야 할 일이다.

마무리로 흔히 드시고 계시는 건강차에 대해 팁을 공유합니다. 주위에 보면 음식이 바로 약이라 했다하여 감기에 걸렸을 때 집에서 이것저것 약재나 음식을 구해와 차로 끓여 드시는 분들이 많으시다. 흔히 생강, 감초, 대추, 계피, 인삼, 파, 꿀 껍질 등을 집어 넣어 달이신다. 계피는 열이 많아 추위를 많이 타는 사람에게는 어울리나, 평소에 열이 많은 사람이 감기 걸렸다고 복용했다간 오히려 낫질 않고 열증성 병이 생길 수 있다. 인삼 또한 보약이라 하여 많이 섭취하지만, 열성 감기였을 때 복용하면 감기를 키워준다 하여 특정적인 증상 외엔 한의원에선 인삼을 감기에 가급적 처방 안한다. 감초와 대추 또한 필요 이상으로 먹을 시엔 부종이 생길 수 있고 부종이 원래 있는 사람이 복용시 통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생강 또한 마른생강을 쓰게되면 인체내부의 진액을 마르게 하여 변비를 유발 할 수있다. 음식도 잘 쓰면 약이 되지만 잘 못 쓰면 독이 되듯이 제대로된 진단없이 민간처방에 맹신하여 잘못된 처방을 내리기보단 한약을 비롯해 음식 전문가인 한의사를 통해 처방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기본적으로 꾸준하게 건강한 식습관과 생활습관, 사고방식을 영위해 나가는 것이 가장 좋은 치료법입니다.

오번에도, 감기질환에 대한 한방치료에 대해 독자들이 충분히 의구심을 가질만하다는 판단을 했다. 그래서 본 취지에 맞게 2월 말까지 로한클리닉으로 오는 모든 방문환자들에 한해 호흡기질환 치료시 한약 3일치를 무료증정한다. 또 로한클리닉의 김일형 한의사는 현재 비염 및 알러지에 좋은 가루 및 연고를 만들어 배포하고 있다.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게 만든 효과적인 비염 및 알러지 연고로 면봉에 약을 발라 코에 집어넣는 방법을 쓴다. 이 기회에 먹는 약과 바르는 약 두 가지 모두 무료로 받고 상담도 받아보길 권한다.

한의사 김일형Ph.D., L.Ac.

한의학전문 석사/박사 졸업

미주통합 한의전문 자격증 취득

AIMI 미주 및 글로벌 한의연구협회 임원

한국, 미국 주행한의학회/동의방약학회 회원

Lohan Chiropractic & Acupuncture Clinic

816-444-1218

역사상 가장 긴 정부 셧다운: 트럼프가 정부를 재개하기 위해 법안에 서명하다 LONGEST SHUTDOWN OVER: TRUMP SIGNS BILL TO REOPEN GOVERNMENT

By JILL COLVIN, LISA MASCARO and ZEKE MILLER

더 해가는 압박과 사회적 분열에 응답하듯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35일간의 역대 최장 기간의 정부 셧다운을 잠시 멈추고 3주간 정부를 임시 재개하겠다고 서명했다. 앞서 트럼프는 국경을 중심으로 장벽을 짓겠다고 공약해 큰 파장을 불러 일으킨 바 있었다. 장미 정원에 홀로 선 그는 2월 15일까지 정부 기관에 자금을 공급하는 법안에 서명하고 의회가 장래에 장벽을 해결할 수 있도록 다시 설득하려고 했다. 그가 의회 지도자들과 동의한 협상 내용은 장벽 건설에 대한 진전은 보이지 않았으나 미국 역사상 가장 긴 정부 셧다운을 종결했다.

상원 의원부터 하원까지 신속하고 만장일치로 이 법안을 승인했다. 트럼프 본인은 금요일 밤 이에 서명했다. 행정부는 연방 당국에 “신속하고 질서 정연한 방식으로” 폐쇄되었던 사무를 재개하라고 요청했고, 정부 직원들은 일자리로 돌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의 퇴각은 국가의 공항에서 지연이 심화되고 수십만 명의 연방 노동자들이 월급을 다시 한번 받지 못하게 되자 교착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 결정된 듯 보인다. 셧다운은 민주당 지도부의 지도로 진행되었으며 정부를 우선 재개한 다음 국경 보안에 대해 이야기해야 한다는 의견을 바탕으로 진행되고 있다.

최근 실시된 여론 조사에 의하면 미국인의 대다수가 정부 셧다운을 비난했고 국경 장벽에 대한 그의 주장에도 비판적인 반응을 내비쳤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가 돈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일방적으로 국경 지대에 자금을 지원하는 국가 비상 사태를 선언할 수 있다고 말했으나, 그러한 움직임은 거의 확실하게 법적 장애물에 직면하게 된다.

의회 지도자들과의 협상의 일환으로 상하원 의원들의 양당 위원회가 국경 지출을 고려하기 위해 형성되었다. 국회의원들에게 해결책을 찾으라는 압력은 두 번째 월급을 받지 못한 수많은 연방 노동자들의 실태를 반영한 지시였다.

이번 거래에는 봉급을 지불 받지 못한 80만명의 연방 노동자들에 대한 임금이 포함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무 연설을 발표할 새 날짜도 예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전 계획되었던 29일은 아니라고 관계자는 발표했다.

민주당은 다른 유형의 국경 기술을 선호하며 트럼프가 구상한 장벽 구축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을 단합해 왔기 때문에 해당 장벽에 대한 예산은 전혀 보장되지 않았다. 백악관 내에서는 트럼프 보좌관들 사이에서는 폭동으로 인한 압박감이 커지고있는 가운데 대치 상태를 무기한으로 유지할 수 없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의 승인 번호는 교착 상태 동안 고통을 겪었다. 몇몇 공화당원들은 공식적으로 혹은 비공식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셧다운 종결을 요구하기도 했다.

지난 금요일 뉴욕의 LaGuardia 공항과 뉴저지의 Newark Liberty International Airport가 이륙까지 최소 90분의 지연을 겪으며 셧다운이 종결되어야 한다는 여론의 목소리도 함께 증가했다. 세계에서 가장 분주한 공항으로 손꼽히는 Hartsfield-Jackson Atlanta International Airport도 긴 보안 대기 시간을 보였는데, 다음주 슈퍼볼 경기를 위해 15만명 이상의 관객이 방문할 것을 고려했을 때 우려되는 상황이 아닐 수 없다.

교착 상태가 극심해지며 상원 위원회를 열 때 Chaplain Barry Black 상원 의원은 “국가적 혼란의 시기”에 “옳은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했다. 상원 의원들은 트럼프와 민주당의 의견이 통합되지 않는 상황에 대해 점차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대화를 나눴다. 이후 회담은 양당이 합의점에 도달할 수 있겠다는 희미한 빛을 제공했으나 몇몇 상원 의원은 대통령이 어떠한 결정을 내릴지는 알 수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상원은 정부를 임시 재개한다는 계획과 트럼프가 공약한 장벽 건설을

위한 57억 달러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표명 했었으나, 몇 분 후 민주당이 대안으로 제시한 2월 8일까지 임시로 정부를 재개하자는 방안에 52-44 표로 찬성했다. 물론 장벽 건설에 대한 비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해당 기간은 임금을 받지 않고 일하거나 집에 머물러야만 하는 정부 노동자들에게 제공할 임금을 비롯한 다양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기간으로 간주된다.

WASHINGTON

Submitting to mounting pressure amid growing disruption, President Donald Trump signed a bill Friday to reopen the government for three weeks, backing down from his demand that Congress give him money for his border wall before federal agencies get back to work. Standing alone in the Rose Garden, Trump said he would sign legislation funding shuttered agencies until Feb. 15 and try again to persuade lawmakers to finance his long-sought wall. The deal he reached with congressional leaders contains no new money for the wall but ends the longest shutdown in U.S. history.

First the Senate, then the House swiftly and unanimously approved the deal. Late Friday, Trump signed it into law. The administration asked federal department heads to reopen offices in a "prompt and orderly manner" and said furloughed employees can return to work. Trump's retreat came in the 35th day of the partial shutdown as intensifying delays at the nation's airports and another missed payday for hundreds of thousands of federal workers brought new urgency to efforts to resolve the standoff. The shutdown ended as Democratic leaders had insisted it must

— reopen the government first, then talk border security.

A strong majority of Americans blamed him for the standoff and rejected his arguments for a border wall, recent polls show. The president has said he could declare a national emergency to fund the border wall unilaterally if Congress doesn't provide the money. Such a move would almost certainly face legal hurdles.

As part of the deal with congressional leaders, a bipartisan committee of House and Senate lawmakers was being formed to consider border spending as part of the legislative process in the weeks ahead. Contributing to the pressure on lawmakers to find a solution was the harsh reality confronting many of the federal workers, who on Friday faced a second two-week payday with no paychecks.

The deal includes back pay for some 800,000 federal workers who have gone without paychecks. Also expected is a new date for the president to deliver his State of the Union address, postponed during the shutdown. But it will not be Jan. 29 as once planned, according to a person familiar with the planning but unauthorized to discuss it.

Money for the wall is not at all guaranteed, as Democrats have held united against building a structure as Trump once envisioned, preferring other types of border technology. Within the White House, there was broad recognition among Trump's aides that the shutdown pressure was growing, and they couldn't keep the standoff going indefinitely. The president's approval numbers had suffered during the impasse. Overnight and Friday,

several Republicans were calling on him openly, and in private, to reopen the government.

The breakthrough came as LaGuardia Airport in New York and Newark Liberty International Airport in New Jersey both experienced at least 90-minute delays in takeoffs Friday because of the shutdown. And the world's busiest airport — Hartsfield-Jackson Atlanta International Airport — was experiencing long security wait times, a warning sign the week before it expects 150,000 out-of-town visitors for the Super Bowl. The standoff became so severe that, as the Senate opened with prayer, Chaplain Barry Black called on high powers in the "hour of national turmoil" to help senators do "what is right." Senators were talking with increased urgency after Thursday's defeat of competing proposals from Trump and the Democrats. Bipartisan talks provided a glimmer of hope Friday that some agreement could be reached. But several senators said they didn't know what to expect as they arrived to watch the president's televised address from their lunchroom off the Senate floor.

The Senate first rejected a Republican plan Thursday re-opening the government through September and giving Trump the \$5.7 billion he's demanded for building segments of that wall, a project that he'd long promised Mexico would finance. Minutes later, senators voted 52-44 for a Democratic alternative that sought to open padlocked agencies through Feb. 8 with no wall money. That was eight votes short. It was aimed at giving bargainers time to seek an accord while getting paychecks to government workers who are either working without pay or being forced to stay home.

HUAWEI ANNOUNCES 5G SMARTPHONE BASED ON OWN TECHNOLOGY

By JOE McDONALD

BEIJING

Chinese tech giant Huawei announced plans Wednesday for a next-generation smartphone that will use its own technology instead of U.S. components, maneuvering to gain a competitive edge and sidestep complaints it is a security risk.

The leading supplier of network switching gear for phone companies, Huawei Technologies Ltd. is spending heavily to develop its own chips, an area where the U.S. dominates. That can reduce Huawei's multibillion-dollar annual components bill and help insulate it against possible supply disruptions when U.S.-Chinese relations are strained.

The handset, billed by Huawei as the first foldable fifth-generation smartphone, will be unveiled next month at the Mobile World Congress in Barcelona, the industry's biggest annual event, said Richard Yu, CEO of the company's consumer unit.

The phone is based on Huawei's own Kirin 980 chipset and Balong 5000 modem. The company says the Kirin 980, released in August, performs on a par with Qualcomm Inc.'s widely used Snapdragon 845.

Sales of Huawei smartphones and other consumer products rose more than 50 percent last year over 2017, showing "no influence" from Western security warnings, Yu told reporters. He said the consumer unit's sales topped \$52 billion, or more than half of the \$100 billion in annual revenue the company has forecast. Huawei has yet to release 2018 results for the whole company.

"In this complicated political environment, we still maintain strong growth," Yu said. Chinese companies are trying

to develop technology to better compete with Western suppliers in telecoms, solar power, electric cars, biotechnology and other fields.

The ruling Communist Party's plans for state-led development of such industries, along with robotics and artificial intelligence, helped trigger a trade war with President Donald Trump.

Both sides have raised tariffs on tens of billions of dollars of each other's goods in the dispute over American complaints Beijing steals or pressures foreign companies to hand over technology. Washington also says Chinese technology plans violate Beijing's market-opening obligations.

Huawei surpassed Apple as the No. 2 global smartphone brand behind Samsung in mid-2018. It uses Qualcomm in its high-end fourth-generation smartphones and earlier Kirin versions in lower-end models. The company, based in the southern city of Shenzhen near Hong Kong, also has developed chips for servers and mobile devices.

Apple Inc. and Samsung Electronics Ltd. already make their own chips.

Qualcomm has far more smartphone chip technology but Huawei is catching up, said Xi Wang of IDC.

"Generally speaking, Huawei's chips are equal to Qualcomm chips in performance," Wang said. "Not only at the mid-level but at the high end, Huawei can compete with Qualcomm."

Huawei, founded in 1987 by a former military engineer, has rejected accusations it is controlled by the ruling Communist Party or modifies its equipment to allow eavesdropping.

Its U.S. market evaporated after a congressional panel labeled

Huawei and its smaller Chinese rival ZTE Corp. security risks in 2012 and told phone companies to avoid dealing with them.

ZTE was nearly driven into bankruptcy last year after the Washington cut off access to U.S. technology over its exports to Iran and North Korea. President Donald Trump restored access after ZTE paid a \$1 billion fine and agreed to replace its executive team and install U.S.-chosen compliance officers.

Australia, Japan and some other governments also have imposed curbs on use of Huawei technology.

The company has stepped up efforts to mollify security fears after its chief financial officer, Meng Wanzhou, was arrested in Canada on Dec. 1 on U.S. charges she lied to banks about trade with Iran.

Huawei's founder and CEO, Ren Zhengfei, is Meng's father. In a rare public appearance, he told foreign reporters in a 2½-hour interview on Jan. 15 that he would reject requests from Chinese authorities for confidential information about its customers. Yu said that despite "political noise" in some countries, Huawei sales outside the United States haven't suffered due to security concerns. The company says it serves 45 of the 50 biggest global phone companies and has signed contracts with 30 carriers to test 5G technology.

"Worldwide, all the carriers love us," said Yu.

Yu repeated Ren's assurances that Huawei has never received an official request for confidential information about customers.

"At Huawei, we never do these kinds of things," he said. "We always protect our customer."

캔사스 한인업소록 (Kansas Korean Business Directory)

(업소변경, 삭제, 새로운 업소 정보는 kim@kckoreanjournal.com으로 연락 주십시오.)

가전제품 수리

A-2 Vacuum and Sewing Machine
816-456-9691

1523 Main St., Grandview, MO 64030

건축/집수리

Cho's Upholstery, 816-444-8656
7702 Wornall Rd KC, MO 64114

Ko Brother's Contractor Builder
913-219-2401

15455 Overbrook Ln., Stanley, KS 66224
Moon Tile 913-522-2311,

12817 W 77th St., Lenexa, KS 66216

Jin D Kim Construction INC, 816-810-6568

8110 N LONDON DR, KC, MO 64151

Young Kim Co, 913-634-2680

7575 W.106th St #13-14, OP, KS 66212

Yi's Home Repair, 913-634-4725

8809 Cottonwood St, Lenexa, KS 66215

구두수선

America Shoe Repair, 816-524-7555

618 SW 3rd St G, Lee's Summit, MO 64063

ACME Shoe Rebuilders, 913-682-5591

211 S. 5th St, Leavenworth, KS 66048

Rosana Shoe Hospital & Tailor

913-469-8070

7556 W 119th, OP, KS 66213

Westfield Shoe Repair, 913-334-2506

8131 State Ave, KC, KS 66112

금융

Family Financial Group:

용자 (장경호) 816-878-8778

106 South Main St, Spring Hill, KS 66083

Merrill Lynch (최원준) 913-906-5299

3401 College Blvd, Leawood, KS 66211

꽃집

Judy's Flowers & Gift, 913-492-1600

12267 W 87th St Pkwy, Lenexa, KS 66215

델리

Break Time Plus, 816-221-4146

2405 Grand Blvd #108, KC, MO 64108

B&L Sub 913-451-8585

7015 College Blvd, #120, OP, KS

Cafe 84, 913-327-8899

10801 Mastin Blvd #190, OP, KS 66210

Corporate Cafe, 913-451-9078

9401 Indian Creek Park Ste #175, OP, KS

Gino's Deli, 913-342-8225

825 N. 7th Street KC, KS 66101

Hill Top Deli, 913-451-3744

10955 Lowell, #120, OP, KS 66210

In And Out, 816-421-5041

1007 Main St, KC, MO 64106

Hyundai Korean Restaurant, 913-682-5352

749 Shawnee, Leavenworth, KS 66048

Neo Delicatessen, 816-421-1788

1000 Walnut St, Ste 205, KC, MO 64106

4 Star Deli & Catering, 913-338-3065

7400 W. 110th St, OP, KS 66210

미용재료

A.Q.Beauty Supply, 816-761-8815

8708 Blue Ridge Blvd, KC, MO 64138

A.Q.Beauty Supply

3812 E. Truman Rd, KC, MO, 816-241-

3123

3136 Stadium Dr, KC, MO, 816-861-7068

AQ Beauty Supply, 913-421-1145

1981 N. 63rd Drive KC, KS 66102

A.Q.Beauty Supplies, 913-758-1171

508 Delaware, Leavenworth, KS 66048

Bannister Beauty Supply & Bazaar

816-761-4300,

8236 Bannister Rd, KC, MO 64134

Beauty Essence, 816-753-8199

1319 Brush Creek Blvd, KC, MO 64110

Beauty N More, 816-753-2199

3814 Main St, KC, MO 64111

Super Bunny's Wigs & Boutiques

913-342-2176

3748 State Ave., KC, KS 66102

CJ's Gold Department Store, 816-444-1500

1240 E. Meyer Blvd, KC, MO 64131

Tres Bliss Beauty/Glamourama, 816-361-5099

1240 E Meyer Blvd, KC, Missouri 64131

GenX, 816-333-7888

1104 E Meyer Blvd, KC, MO 64131

Ebony Wigs & Beauty Supplies, 816-421-0450

1216 Mcgee, KC, MO 64106

Evelyn's Beauty Supply, 816-842-1400

1911 Baltimore, KC, MO 64108

King's Beauty Supply, 816-444-4333

7720 Troost Ave, KC, MO 64131

K.C. Discount Warehouse, 816-371-7766

932 Minnesota Ave, KC, KS 66101

Mid-K Beauty Supply,

1111 Brooklyn Ave, KC, MO, 816-421-1145

3523 Prospect Ave, KC, MO, 816-921-2255

Metro Beauty Supply, 816-444-9562

1636 E. 63rd St, KC, MO 64110

Metro North Wig Salon, 816-436-7840

400 NW Barry Rd, KC, MO 64155

Metro North Wig Salon, 816-436-7840

220 NE Barry Rd, KC, MO 64155

Unique Beauty Supply, 816-761-5255

7019 E 95th Street, KC, MO 64134

JT Beauty Supply, 816-763-1666

6851 Longview Rd, KC, MO 64134

Sonya Beauty Supply & Variety

816-767-9575

12030 Blue Ridge Blvd, Grandview, MO

Two Brother's Beauty Supply

843 Minnesota Ave, KC, KS, 913-621-1212

6429 State Ave., KC, KS, 913-788-1212

Wig City, 913-633-2550

10701 Shawnee Mission Pkwy

Shawnee, KS 66203

미장원

Great Cuts, 913-341-5265

10312 Metcalf, OP, KS 66212

Hair Care Family, 816-257-5321

17004 E. 24 HWY, Independence, MO

64056

Hyundai Beauty Salon, 913-682-6688

712 S. 5th St, Leavenworth, KS 66048

Sue's Beauty Salon, 913-682-2337

215 S. 5th Street, Leavenworth, KS 66048

Koreana Salon, 913-701-9417

12020 Blue Valley Pkwy, Ste 212, OP, KS

Salon DD, 913-777-0052

7800 Shawnee Mission Pkwy, OP, KS 66202

D & S Salon, 913-428-7827

6471 Quivira Rd, Shawnee, Kansas 66216

베이커리/도넛

Daylight Donuts, 913-884-8400

828 E. Main Gardner, KS 66030

Dave's Bakery & Deli, 816-461-0756

214 W. Maple, Independence, MO 64050

Daylight Donuts, 913-459-8219

8736 Lackman Lenexa, KS 66219

Tours Les Jours, 913-383-2828

10348 Metcalf Ave, OP, KS 66212

변호사

Kutak Rock, L.L.P. (김준범) 816-502-4612,

10412 Metcalf Ave, OP, KS 66212

Ray E. Sousley (Ray Sousley) 816-931-5000

800 Westport Rd, KC, MO 64111

Ji Hyun (Jennifer) Kim, Corporate Finance

Lawyer Stinson Leonard Street

816-691-3464

1201 Walnut Street, Ste 2900, KC, MO

64106

Susan Son, McCrummen Immigration Law

2005 Swift Ave., North KC, MO 64116

병원

건강한의원 (Kan Acupuncture Clinic)원장 윤대
일 314-317-9900, 12935 Olive Blvd.

St. Louis, MO 53141 (주주식당옆)

**로한 척추신경 & 침술 클리닉/ 로한 스킨 클리닉
816-444-1218,**

404 Bannister Rd. Suite B, KC, MO 64131

www.lohanchiro.com, www.lohanskin.com

신태전 척추신경 통증 한방재활 병원:

913-649-2044,

7050 W 105th St. O.P. KS 66212

Kacclinic.com

장영준 치과 (State Ave Dental Office)

913-299-8554, 8476

6708 State Ave, KC, KS, 66102

Bethesda 척추/ 침술 클리닉: 913-341-1930

8014 State Line Rd. Suite 101 Leawood KS

Grandview Chiropractic and Acupuncture

Clinic (Dr. Kyunghwan An)

816-217-0020, 12421 Suite O Blue Ridge

Bldv., Grandview, 64030

Oriental Acupuncture & Herb (김진수)

816-942-7879

12655 State Line Rd, KC, MO 64145

Excelsior Springs Nursing (황경호)

816-630-3145

1003 Meadowlark Ln, Excelsior Springs,

MO

The University of Kansas Health System

Yoon Hang Kim MD 김 윤향 의학박사

대체의학, 침술, Phone 913-588-6208

4000 Cambridge St., Mailstop 1017, 2nd

Floor Sudler, Suite 2053, Kansas City, KS

66160

보석

A&G Jewelry 913-281-4794

4301 State Ave, KC, KS 66102

Han's Jewelers

913-299-3655, 7700 State Ave, KC, KS

913-648-5100, 10446 Metcalf Ave, OP, KS

보안시스템

Z & H Electronics 913-250-0677

605 Brookwood, Lansing, KS 66043

보험과 부동산/세무회계

BizPro 비즈 프로 세무, 회계/플래티넘 부동산 :

Junsu Kim, Mia Bahn, 913-383-8558

10322 Metcalf Ave. O.P. KS 66212,

의료보험 에이전트 : 이리사 913-217-5169,

7180 W 107th St, #10, OP, KS

LeeLisa2014@yahoo.com

Bae Brothers Co (816) 333-1285

1240 E Meyer Blvd, Ste A, KC, MO 64131

Marks, Nelson Vohland & Campbell, Radetic

LLC (박경훈) 913-498-9000

7701 College Blvd Suite 150, OP, KS

Insurance Agent, Lisa Lee Moran, 913-

217-5169, lisa@autohomekc.com, 7180 W

107th St #10, OP, KS 66217

부동산 중개

블락 부동산 BLOCKS Real Estate

Jennifer Jang, 장지연, 816-729-6232

jjang@blockllc.com

Paul Shin, 816-560-0988

pshin@moveiwith platinum.com

Explore Real Estate (박영림) 913-522-2475

11267 Strang Line Rd, Lenexa, KS 66215

Keller William Realty Partners Inc. (양혜연)

913-266-5897, 913-484-6126 8005 W

110th St Suite 100, OP, KS 66210

K & K Inc.(이미애) 816-716-9001

1714-1726 W. 39th St, KC, MO 64111

6413 N. Park Ave, Gladston, MO 64118

사건관/프레이

Art & Frame 웨어하우스

98854 N Boardwalk, KC, MO, 816-584-8009

9216 Metcalf Ave, OP, KS, 913-385-9199

1032 W 136th St, KC, MO, 816-941-2307

상담/용역

Premier Medical Personnel (Nancy)

913-345-8484, 11038 Oakmont, OP, KS

세탁소

Country Meadows Laundrymat

816-524-5677

908 NE. Chipman, Lee's Summit, MO 64085

Country Cleaner, 816-373-3324

17201 E. 40 Hwy #109, Independence, MO

Central Coin Laundry 913-621-2224

1036 Central Ave., KC, KS 66102

Dry Cleaner 816-891-8448

10018 N, W, Executive Hill Blvd, KC, MO

Diamond Cleaner 913-642-8353

6701 W. 75TH ST, OP, KS 66204

Easy Cash & Wash 816-924-3235

7000 Eastwood Trfy, KC, MO 64129

Holiday Cleaners (913) 631-6181

7945 E Frontage Rd, OP, KS 66204

Ida's Daisy Fresh Cleaners 816-436-6648

7521 N. Oak TRFWY, Gladston, MO 64118

Independence Coin Laundry 816-252-7776,

10816 E. 23rd St South, Independence, MO

Prestige Cleaners 816-763-2522

12200 Blue Ridge EXT #B, Grandview, MO

Koin Kleener 816-453-6303

10018 NW. Executives Hill Dr, KC, MO
Tae's Laundry, 913-782-9345
223 S. Kansas Ave, Olathe, KS 66061
VIP Cleaner, 913-894-6606
10400 W. 103rd St, OP, KS 66215
Won's Cleaners, 913-722-1681
5921 Johnson Dr., Mission, KS 66202
Westwood Village Laundromat
913-432-8479
2801 W. 47th St., Westwood ,KS 66205
Young's Dry Cleaning and Laundromat
1274 Merriam Ln, KC, KS 66103
스프링클러
Heritage Irrigation Co., 913-205-5922
11511 S Strang Line Rd Suite A, Olathe, KS

식당
조선 갈비 (Chosun), 913-378-3534
12611 Metcalf Ave, OP, KS 66213
초가 (Choga), 913-385-2151
6920 W. 105th St, OP ,KS 66212
소반 (Sobahn) 913-384-1688
7800 W 63rd St #3, OP, KS 66202
Bob Wasabi, 816-753-5797
1726 W 39th St, KC, MO 64111
Gangnam Restaurant (913) 383-8888
10326 Metcalf Ave, Overland Park, KS 66212
Cafe Vie (베트남 쌀국수) 913-558-0600
10330 Metcalf Ave, OP, KS 66212
Haru Sushi, 816-942-1333
13133 Stateline Rd, KC, MO 64145
Kokoro Maki Japaness Restaurant
785-838-4134
601 Kasold Drive #102, Lawrence, KS 66049
Maru Sushi and Grill, 913-258-5879
5621 W 135th St #2620, OP, KS 66224
New Peking, 816-531-6969
540 Westport Rd, Kansas City, MO 64111
O Cafe (Korean), 785-312-9211
1530 W 6th St, Lawrence, KS 66044
Red Snapper, 816-333-8899
8430 Ward Pkwy, KC, MO 64114
Sushi Uni, 913-322-8667
12841 W 87th St Pkwy, Lenexa, KS 66215
Wa Japaness Restaurant, 785-843-1990
740 Massachusetts, Lawrence, KS 66044

식품점
동양식품 Oriental Supermarket
913-341-3345
10336 Metcalf Ave, OP, KS 66212
중양식품 Joong Ang Grocery
913-384-4989
7800 W 63rd St #1, OP, KS 66202
현대 식품점, 913-651-2622
749 Shawnee St., Leavenworth, KS 66048
Arirang Market, 913-680-1381
626 B Cherokee St, Leavenworth, KS 66048
Chunco Foods, 816-283-0716
1400 E. 2nd St., KC, MO 64106
JOY 식품, 913-321-3177
930 Minnesota Ave, KC, KS 66010

여행사
Wing Gate Travel , 913-451-9200
8645 College Blvd #100, OP, KS 66210

오디오
Sound of Stereo,913-281-4601
920 Minnesota Ave KC, KS, 66101

의류
Bargain City Bazaar, 913-342-7002
916 Minnesota Ave, KC, KS 66101
Fashion In Motion, 816-361-2552
1256 E. Meyer Blvd, KC, MO 64131
Jung Tailoring Shop, 816-228-9191
103 SW State Route 7, Blue Springs, MO
Rome's Boutique, 913-772-6885
414 Delaware St., Leavenworth, KS 66048
So Young Fashion, 816-421-1171
400 Grand Ave #66, KC, MO 64106
Young Fashion, 816-861-0006
3116 Prospect Ave, KC, MO 64128

Midway Shopping Center, 913-281-7035
4305 State Ave, KC, KS 66102

선물/화장품
동양 백화점/비디오 Oriental Gifts & Video
913-961-2533
10346 Metcalf Ave, OP, KS 66212
Mary Kay, 913-397-6706
11730 W. 135St #11, OP, KS 66221
Olathe BP, 913-402-9331
1605 E Santa Fe, Olathe, KS 66061

의류수선
Speedy Alteration, 913-248-1151
7727 Quivira Rd, Shawnee Mission, KS 66216
Corinth Alteration, 913-383-9560
4185 Somerset Dr, Praire Village, KS 66208
Camelot Court Alteration, 913-327-5525
11831 Roe Ave, Leawood, KS 66209
Kim's Tailor Shop, 913-451-2727
4872 W. 119th St, Leawood, KS 66209
Kim's Alteration, 816-228-1355
919 W. 40 HWY, Blue Springs, MO 64105
K.C.Alteration, 816-474-8333
814 Grand Ave., KC, MO 64106
Lee's Alteration, 816-765-2255
7011 E. Bannister Rd., KC, MO 64134
Leawood Alteration, 816-942-8057
12925 State Line., KC, MO 64145
Lenexa Fashion & Alteration, 913-888-0960
14924 W. 87th St, Lenexa ,KS 66215
M & J Tailor Shop, 913-782-8107
18280 157 ST, Olathe, KS 66062
Maxines, 913-341-2534
9528 Hadley, OP, KS 66212
Park's Alteration, 816-221-3129
304 E. 21st Ave., KC, MO 64116
Tom Tailor Shop, 913-888-8737
10392 Mastin, OP, KS 66212
Quivira Taylor, 913-851-4991
11670 W. 135th St, OP, KS 66221

자동차 수리/판매/부속
Elim Motor (김중수) - 판매, 913-371-4841
29 S. 18th St, KC, KS 66102

Jo's Auto & Body Center Inc.
(정판조) - 수리,816-923-0330
3333 Stadium Dr, KC, MO 64128
Shawnee Auto Motive Center
(권정수) - 수리 913-631-3497
11015 W. 58th St, Shawnee ,KS 66023

전자회사
Maxon America, Inc., 913-859-9515
11535 W 83rd Ter, Lenexa, KS 66214
www.maxonamerica.com
DataLocker, 913-310-9088
7007 College Blvd #240, OP, KS 66211

잡화
Dollar Mart, 816-861-2223
3105 Prospect Ave, KC, MO 64128
Hyesuk Haglin, 816-822-0375
6025 State Line Rd., KC, MO 64113

조경/잔디
Lee's Lawn & Tree Service, 816-524-7582
11714 Milton Thompson Rd
Lee's Summit, MO 64068
Young Brothers Lawn & Tree Service
816-616-3292, 816-318-1667
2101 E 183rd St, Belton, MO 64012

주류 판매
Bi - Lite, 816-761-7337
12818 S. 71 HWY, Grandview, MO 64030
C & J Enterprise Inc, 816-253-9112
#2 Robin Dr, Agency, MO 64401
Deluxe Liquor, 816-231-8119
4205 E. 24th St, KC, MO 64127
ISO Growell Corp, 913-383-5344
10412 Metcalf Ave., OP ,KS 66212
J&L Discount Wines & Spirits, 913-648-1770
10304 Metcalf Ave., OP ,KS 66212
KC Liquor, 913-441-8423
10320 Kansas Ave, Bonner Springs, KS

LG Infocomm USA, INC, 913-498-5912
6201 College Blvd Suite 350, OP, KS 66211
Ray's Discount Liquor, 913-268-9862
7422 Nieman Rd., Shawnee, KS 66203
Shamrock Liquor
10326 Blue Ridge Blvd, KC, MO 64134
816-966-9917
11810 Blue Ridge Blvd, KC, MO 64134
816-763-3380
Sommer's Liquor, 913-371-2020
146 S. 18th St, KC, KS 66102
Tec Net Int'l Inc, 816-584-8638
1420 NW Vivion Rd #109, KC, MO 64118
Tekk Incorporated, 816-746-1098
226 NW. Parkway, Riverside, MO 64150
Westport Wine & Liquor, 816-561-3500
1106 Westport Rd, KC ,MO 64111

주유소
INNER CITY OIL, 913-371-4521
540 S. 10 th Street, KC ,KS 66102
Swansea Inc./Phillip 66
913-488-163/785-842-6816
1801 W 2nd St., Lawrence, KS 66044

청소용품
T.B.S Co. Inc., 913-722-1106
3054 S.24th Street, KC, KS 66103
www.jaytbs.com

청소
Am-Ko Building Maintenance, INC.
(John Lee) 913-980-8888
P.O. Box 2277, Shawnee Mission, KS 66201
GBM, 913-209-3639
12057 Hayes Ln #144., OP, KS 66213
G.Y. Janitorial Service, 913-239-9848
13908 Bradshaw., OP ,KS 66221
HBM INC., 913-321-3303
400 State Ave, KC, KS 66106
Jong's Building Service, 816-651-6007
11717 W. 99th St, OP ,KS 66214
Lee's Janitorial Service, 913-962-0742
7110 Long Ave., Shawnee, KS 66216
Park's Maintenance, 816-243-5669
7512 N. Rhode Ave KC ,MO 64153
World Wide Cleaning Company
913-290-9638
13403 Ballentine Rd, OP, KS 66213
Young's Service Corp., 913-683-0308
2021 Cambridge., Leavenworth ,KS 66048

카운셀링
캔사스 시티 카운셀링 센터
(KC Counseling Center) 916-929-5557
10100 Metcalf Ave, O.P. KS 66212

컨비니언스 스토어
ConerSide Market, 816-254-2221
108 N. Sterling Ave, Sugar Creek, MO 64054
Pop's Quik Shop, 816-483-5095
3402 E. 9th St., KC ,MO 64124

컨설팅
Sook Park, 785-296-3760
1000 S. W. Jackson Ave # 100., Topeka ,KS

태권도
Choon Lee's Academy Of Taekwondo
121 NE. 72nd St., Gladston, MO
816-439-5909
1975 N. 63rd St., KC ,KS
913-299-5425,
11453 W. 64th St, Shawnee, KS 66203
913-631-1414
Ko's Black Belt Academy
3413 NW. Mill Dr., Blue Springs, MO 64015
816-224-0000
3923 S. . Noland, Independence, MO 64055
816-254-0000
818 SW Blue Pkwy, Lee's Summit, MO 64063
816-525-4300,
2045 W. Kansas, Liberty, MO 64068
816-781-3800
11632 W. 135th St, OP, KS 66221

913-897-1300,
10528 Metcalf, OP, KS 66212
913-341-2000
Kim's Taekwondo Pavilion, 913-897-0456
10002 W. 129th St, OP, KS 66213
USA Taekwondo Academy, 913-685-4858,
KMC Taekwondo Academy, 913-2052-0232
8841 Glenwood St., OP, KS 66212
Korea America Taekwondo Education Inc.
2127 E 151st Olathe, KS 66062
913-390-0888
12817 W. 87th Street Parkway Lenexa, KS 913-310-9600
22338 W. 66th Street, Shawnee, KS 66226
913-441-6520,
19321 E. US-40 Highway Suite P
Independence, MO 64055
816-795-1090
3715 W. 133rd Street, Leawood, KS 66209
913-498-0910
14877 Metcalf Ave., OP, KS 66223
913-851-1960
Kim Dokhan USA, 816-356-8282
6129 Blueridge Blvd Raytown, MO 64133
Master's Martial Arts Academy
913-681-1022
14868 Metcalf Ave, OP, KS 66223
Pak's Academy Of Taekwondo
411 Pine St, Raymore, MO 64083
816-322-5000
SunYi Traditional Taekwondo Academy
785-266-8662
410 SW 33rd St, Topeka, KS

투자/상담
KJ Consulting
P.O. Box 1775, Lawrence, KS 66044

특수기술
Spartan Laser Inc., 816-353-7700
6501 Hadley, KC, MO 64133

학교/학원/보육
놀이방: ABC Day Care, 913-651-6907
1510 10th Ave., Leavenworth, KS 66048
학습지: KUMON 구분 영어,수학
8502 W 133rd St, OP, KS, 913-897-1111
151st St. & Nall Ave., 913-681-0400
kumon.com/stanley
골프: 개인교습, 김준배 PGA 프로골퍼,
913-897-3809, 913-558-7997/
www.golfop.com, jbkgold@gmail.com
미술: 이안 아트스쿨, 816-646-1376
newspring78@naver.com
www.artstudioian.com
8841 Glenwood St. O.P. KS 66212
음악: KC 음악학원 (피아노 : 913-272-1177,
바이올린 913-687-6784)
한글교육 : 캔사스 시티 한국학교 816-469-
8110. 8841 Glenwood St. O.P. KS 66212

호텔/모텔/여관
Crown Lodge, 816-353-3000
8500 E State Rte 350, KC, MO 64133
Comfort Inn, 816-632-3909
1803 Comfort Lane, Cameron, MO 64429
Ramada Inn, 620-343-2200
2700 W. 18th Ave., Emporia, KS 66801
Village Inn, 785-242-4433
2520 S. Main St., Ottawa ,KS 66067

화방/사진
Cha Fine Art Studio, 913-962-2118
6656 Charles Dr., Shawnee, MO 66216
Diane Flynn-Yi Portrait, 816-532-8026
14605 Killarney Lane, Smithville, MO 64089

히팅/클럽
Bee Tech Service, 913-980-2464
1106 S Palmer Ln, Olathe, KS 66061
Dokko's Specialty Service, 913-685-0451
12824 Mastin St, OP, KS 66213

기타
Yedang Village LLC, 913-972-6645
13881 138th St. #104, Olathe ,KS 66062



중국 슬럼프가 노동자를 압박하고 소비자 지출을 망치다

CHINA SLUMP SQUEEZES WORKERS, HAMMERS CONSUMER SPENDING

By JOE McDONALD

Yu Mingang은 저조한 경제 활동이 그의 계획을 틀어 놓기 전까지만 해도 중국 제조업체들이 대중에게 주식을 팔 준비를 하고 있었으나, 감사원에 대한 수요가 점차 줄어들어 따라 정리해고됐다. 그러나 그는 절망하지 않았다. 그는 허리띠를 단단히 졸라맸다. 더 이상 영화나 외식은 사치였고 컴퓨터 구입도 연기했다. 경기 침체는 중국 공산당이 의존하고 있는 도시 노동자와 기업가들을 상대로 중국 경제를 저임금 공장에서 번영하는 소비재 시장으로 변화시키는데 압박하고 있다.

표제에 드러난 경제 상황은 여전히 활발해 보인다. 2019년의 경제 성장률은 6% 이상으로 지난해 6.5%보다 아주 약간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다른 분야의 급격한 소비 감소를 감추기 위한 정부 지출이 늘어나고 있다. 대중이 이 사실을 아는 순간 소비 활동을 억제하여 경기 침체를 악화시킬 수 있다.

베이징의 야망 넘치는 기술 발전에 대한 워싱턴과의 관세 전쟁은 상승하는 실직에 대한 불안감과 자동차, 부동산 및 소비재의 판매량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중국 소비자들에 대한 의존도가 점점 높아지는 중국의 무역 상대국 및 글로벌 기업들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미 중국 시장 내 애플(Apple Inc.), 제너럴 모터스(General Motors), 티파니(Tiffany & Co.) 등은 판매가 감소했다고 한다. 자동차 판매율도 2018년 30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다. 일본과 한국은 중국에서 판매되는 스마트폰 및 기타 전자 제품에 대한 부품 수출이 더 감소했다고 보고하기

도 했다. 2007년에 14% 이상으로 정점을 이뤘던 경제 성장의 감소는 부분적으로 의도된 것이다. 규제 기관들은 2017년 말 결산을 완충하기 위해 대출을 단속했다. 그러나 경기 침체는 예상보다 더 급격하게 나타났다. 민간 부문은 큰 타격을 입었다. 집권당은 중국에 새로운 일자리와 부를 창출하는 기업가들을 전폭 지원하겠다고 2013년 공약한 바 있다. 그러나 개혁 옹호론자들은 시진핑 주석이 석유, 은행 및 기타 국영 기업을 확대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불평한다. 심화된 경제 침체에 시달리던 시진핑 주석과 다른 지도자들은 조세와 규제 완화를 통해 사기업을 돕겠다고 공약했다.

최고 경제 관료인 리커창 국무원 총리는 12월에 은행가를 만나 개인 사업체를 상대로 30%의 대출을 만들어 내라고 말했다고 국영 언론이 보도했다. 중앙은행은 12월 19일 중소기업을 위해 1000억 위안(140억 달러)의 대출 기금을 발표했다.

미국에 대한 수출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관세 인상에도 불구하고 2018년 후반까지 지속되었다. 그러나 12월 판매량은 전년도에 비해 3.5% 감소했다.

초조한 사업체와 소비자들은 이미 투자와 주요 구매를 연기하고 있다. 이미 진행 중인 일자리와 산업의 변화로 인한 경제 침체에 대한 압력에 더해졌다. 여당은 국영 산업을 축소하기 위해 수백만 건의 철강 및 석탄 채굴 직종을 모조리 제거했다. 2017년 이래 베이징, 상하이 및 기타 대도시는 공식 허가가 부족한 이주 노동자들을 강제로 추방해왔다. 현지 지도자들은 인구 밀집을 줄

이기를 원하지만 레스토랑, 소매점 및 기타 회사들은 점차 이민자들을 종업원으로 혹은 소비자로 여기고 있다.

전반적으로, 가처분 소득은 2018년의 처음 3/4 분기 동안 5.7%로 상대적으로 높았지만, 2017년의 6.6%보다 떨어졌다. 소매 판매 성장률은 11월에 전년 동기 대비 8.6% 하락한 5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중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은 건설업 또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금융 연구 기관인 J Capital Research의 Anne Stevenson-Yang에 따르면 중국 북서부에 있는 일부 개발자들은 현금 거래가 곤란해지면서 월급 대신 아파트를 빌려 계약자에게 돈을 지불하기도 한다. 경제 전문가들은 정부의 경기 부양책이 힘을 얻음에 따라 경기 침체가 올해 바닥을 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BEIJING

Yu Mingang had a good job helping Chinese manufacturers prepare to sell shares to the public until the cooling economy derailed those plans. As demand for auditing services sank, the 25-year-old accountant in the eastern city of Hangzhou was laid off in December. Yu tightened his belt: No more movies or eating out. He put off buying a computer.

The downturn is squeezing urban workers and entrepreneurs the ruling Communist Party is counting on to help transform China from a low-wage factory into a prosperous consumer market. Headline economic numbers still look healthy. Growth in 2019 is

forecast at more than 6 percent, down only slightly from about 6.5 percent last year. But it is propped up by higher government spending, which masks sharp declines in other areas. Those are spooking the public and discouraging spending, which could make the downturn worse.

A tariff war with Washington over Beijing's technology ambitions is adding to anxiety over job losses and tumbling sales of cars, real estate and consumer goods. That anxiety is hitting China's trading partners and global companies that increasingly count on Chinese consumers.

Apple Inc., General Motors Co., jeweler Tiffany & Co. and others say sales are down. Auto purchases shrank in 2018 for the first time in three decades. Japan and South Korea report lower exports of components for smartphones and other electronics sold in China. The decline in economic growth that peaked above 14 percent in 2007 is partly intentional. Regulators clamped down on lending in late 2017 to cool a debt boom. But the downturn was sharper than expected.

The private sector has been hit hard. The ruling party promised in 2013 to support entrepreneurs who create China's new jobs and wealth. But reform advocates complain President Xi Jinping's government has instead focused on expanding state-owned companies that dominate oil, banking and other industries. Jolted by the deepening slump, Xi and other leaders have pledged to help private business by cutting taxes and regulation.

Premier Li Keqiang, the top economic official, met with bankers in December and told them to make 30 percent of new loans to private business, state media reported. The central bank announced a 100 billion yuan (\$14 billion) loan fund on Dec. 19 for small companies. Exports to the United States held up through late 2018 despite President Donald Trump's tariff hikes. But sales shrank 3.5 percent in December compared with a year earlier as those penalties started to hurt demand.

Jittery companies and consumers already were putting off investments and big purchases. The slowdown is adding to pressure from wrenching changes in jobs and industry that already were under way. The ruling party has wiped out millions of steel and coal mining jobs in a marathon campaign to shrink those bloated state-owned industries. Since 2017, Beijing, Shanghai and other big cities have forced out migrant workers who lack official permission to live there. Local leaders say they want to reduce

crowding, but restaurants, retailers and other companies depend on migrants as employees and increasingly as customers. Overall, disposable consumer income rose by a relatively healthy 5.7 percent in the first three quarters of 2018, but that was down from 2017's 6.6 percent. Retail sales growth fell to a lower-than-expected 8.6 percent from a year earlier in November, its weakest rate in five months. Construction, the industry that powered China's boom in past decades, also is struggling.

Some cash-strapped developers in China's northwest have resorted to paying contractors by giving them apartments, according to Anne Stevenson-Yang of J Capital Research, a financial research firm. Economists expect the downturn to bottom out this year as government stimulus gains traction.

AP researcher Yu Bing contributed.

한국 건강 식품 유통 브랜드 자연 맛남이 '종근당 6년근 홍삼 골드'를 수출하다

KOREAN HEALTH FOOD DISTRIBUTION BRAND NATURE FOOD DISTRIBUTES 'CHONG KUN DANG 6-YEAR-OLD RED GINSENG GOLD' ABROAD



이화 컴퍼니의 식품 브랜드인 자연 맛남(Nature Food)이 건강 식품인 '종근당 6년근 홍삼 골드'의 국제 유통을 시작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홍삼은 면역 강화, 피로 회복, 기억력 회복, 혈액 순환 개선 및 항산화 등 많은 효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이점은 홍삼이 가진 사포닌, 홍삼 다당류, 아미노 당 및 미네랄에서 나온다. 사포닌은 건삼을 찌고 건조시켜 홍삼을 만드는 과정에서 생성된다. 여러 종류의 홍삼 중에서도, 6년근 홍삼은 사포닌과 영양소를 가장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다.

"6년근 홍삼 골드는 연세가 많으신 분들에게 최고의 선물 중 하나"라고 이화 컴퍼니의 CEO는 말했다. 또, "6년근 홍삼은 다른 홍삼 제품보다 쓴 맛이 덜

해 모든 연령대와 성별이 부담없이 즐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화 컴퍼니는 유기농 농산물과 신선한 식품을 농장에서 직접 제공하는 유통 업체이다.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계절의 농수산물, 가정식 반찬, 건강 식품 및 간식을 스마트 상점, 쇼핑몰 및 마트 및 소셜 커머스에 판매하고 있다. 또한 제품 판매, 판매 분석 및 고객 분석에 대한 원 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자연 맛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ttps://smartstore.naver.com/ifoodmall> 또는 <https://www.facebook.com/NatureFoodKorea>에서 확인할 수 있다.

SEOUL, South Korea
Jan 10, 2019

Ewha Company said its food brand, Nature Food, will begin

an international distribution of health food product, 'Chong Kun Dang 6-year-old Red Ginseng Gold.'

Red ginseng has many medicinal effects including immunity enhancement, fatigue relief, memory recovery, blood circulation improvement and antioxidant properties. These benefits stem from a harmony of saponin, red ginseng polysaccharide, amino sugar and minerals. Saponin is generated during the process of steaming and drying ginseng to turn it into red ginseng. Among many kinds of red ginseng, six-year-old ones are said to be the richest source of saponin and nutrients.

"Six-year-old Red Ginseng Gold is one of the best gifts to seniors," chief executive of Ewha

Company said. "It tastes less bitter and milder than other red ginseng products, so it can be eaten by men and women of all ages, not to mention old and middle-aged people."

Ewha Company is a distributor delivering organic produce and fresh foods directly from farms. Under the slogan of "We provide supreme service," the company sells agro-fishery products of the season, home style side dishes, health foods and snacks to smart stores, shopping malls and marts and through social commerce. It also provides one-stop services about merchandising, sales analysis and customer analysis.

More information on Nature Food is available at <https://smartstore.naver.com/ifoodmall> or <https://www.facebook.com/NatureFood-Korea>.

Copyright Business Wire 2019.

PUB: 01/10/2019

View the full release here:

<http://www.businesswire.com/news/home/20190110005201/en>



셋다운 이후 미국 경제의 전망 ECONOMY LIKELY TO PICK UP, THOUGH PAIN MAY LINGER FOR SOME

By JOSH BOAK

정부가 재개한 이후로 미국 경제가 꾸준히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국가와 연방 노동자들에 가해진 손상이 회복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경제학자들은 말했다.

대부분의 분석가들은 35 일간의 정부 셋다운이 2019 년의 첫 3 개월 동안의 연간 경제 성장률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산했다. 이어, 뒤쳐진 경제 성장률은 곧 제자리를 찾을 것이나, 지난 5 주 동안 연방 산업 노동자들과 정부 계약자들이 소비하지 않은 영화 티켓, 레스토랑 및 여행과 같은 지출은 결코 회복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두 달 간 월급이 없어진 많은 정부 노동자들은 푸드뱅크를 방문하거나 대출을 해야만 했다. 이들 중 다수는 차후 월급은 지급받을 예정이나 몇몇 계약직 노동자들은 이마저도 수령하지 못할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국경 지대에 벽을 짓겠다는 공약을 위해 민주당 측이 수십억 달러 예산을 승인하기 희망하면서 3주 동안 정부 폐쇄를 감행했으나 끝내 해당 안건에 대한 예산 확보는 하지 못했다.

한편, 셋다운 기간 동안 공항 보안 및 항공 교통 관제사 부족으로 인해 뉴욕의 LaGuardia 공항과 뉴저지의 Newark Liberty International Airport와 같은 교통의 요지에서 여행이 지장을 받았다. 지난 13 일 버지니아주의 핵심 센터에서 근무하는 공중 교통 관제사 13명 중 6 명이 근무를 하지 않으며 오후 중반까지 약 3,000 편의 항공이 지연된 이후 정부를 재개하라는 압력이 커진 바 있다.

S & P Global Ratings는 정부

폐쇄로 인해 미국 경제가 약 60 억 달러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추산하는데, 이는 19 조 달러 이상의 미국 경제에 대비하면 상대적으로 막대한 손실은 아닌 것으로 추정된다. Amherst Pierpont Securities의 수석 경제학자인 Stephen Stanley는 “폐쇄가 더 오래 지속된다면 경제적 영향으로 인해 여행 문제, 세금 환급 등이 급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의 전망이 어떠한 간에 이미 가해진 피해는 즉각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일부 연방 직원들은 셋다운동안 직업 안정성에 대한 불안감을 표명했으며, 가장 숙련되고 재능 있는 인재들이 정부를 떠날 가능성도 잇따르고 있다. 이미 일부 지역이 정부 근로자 부족에 직면해있는 현시에 이런 파동은 잠재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

취업 사이트 Indeed에서 추적한 조회수에 따르면 셋다운 기간 동안 다양한 연방 기관에서 취업 검색 빈도수가 급증했으며, 국토안보부, 국세 조사국, 국세청 및 교통 안전 청에서 월급이 지급되지 않은 직원들은 지난 2 년간 대비해 구직을 하는 경향이 훨씬 높았다.

한 가지 남아있는 문제는 2 월 15 일에 트럼프가 명시한 임시 재개 기간이 끝난 후 정부가 또 다시 폐쇄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다. Moody's Analytics의 수석 경제학자인 Mark Zandi는 우려한 상황이 발생하면 소비자 신뢰가 완전히 무너져 경제가 위태로워 질 것이라고 말했다.

BALTIMORE (AP)

The U.S. economy will likely resume its steady growth now that the government has reopened, though economists say some scars — for the nation and for federal workers — will take time to heal.

Most analysts estimate that the 35-day partial shutdown shaved a few tenths of a percentage point from annual economic growth in the first three months of 2019. They say growth should pick up in the coming months, though some of the money federal workers and contractors didn't spend in the past five weeks — on such items as movie tickets, restaurants and travel — will never be made up. Having gone without two paychecks, many federal workers were forced to visit food banks or to borrow money. Federal workers will now receive backpay, though some contractors might not. President Donald Trump agreed to reopen the government for three weeks after having forced the shutdown in hopes of compelling Democrats to approve billions for a wall on the Mexico border. Trump failed to secure any such money.

During the shutdown, a shortage of airport security and air traffic controllers disrupted travel at such major hubs as LaGuardia Airport in New York and Newark Liberty International Airport in New Jersey. The pressure on Trump to reopen the government intensified Friday after a delay of about 3,000 flights by mid-afternoon because six of 13 air traffic controllers didn't show up to work at a critical center in Virginia.

S&P Global Ratings estimates that the economy lost \$6 bil-

lion because of the government closure — a sizable but relatively negligible sum in a \$19 trillion-plus U.S. economy.

"If the shutdown had lasted much longer, the economic impacts would have snowballed — travel problems, tax refunds, etc.," said Stephen Stanley, chief economist at Amherst Pierpont Securities. Still, the damage isn't likely to lift immediately. And some federal employees had expressed anxiety during the shutdown about the stability and security of their jobs. The most skilled or talented among them may be likelier to leave government service, a potential problem for an economy already facing worker shortages in some areas.

Job searches by employees at multiple federal agencies jumped during the shutdown, according to clicks tracked by the jobs site Indeed. Employees who had gone unpaid at the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Census Bureau, the IRS and the Transportation Safety Administration were much more likely to be hunting for a new job compared with the past two years of searches.

One lingering risk is if Trump chooses to shutter the government again after the three-week agreement lapses on Feb. 15. Should that occur, it would sabotage consumer confidence and hurt the economy, predicted Mark Zandi, chief economist at Moody's Analytics.

"It would wipe out confidence," Zandi said.

AP Economics Writer Martin Crutsinger contributed to this report.

지사 예산 계획이 분열된 캔자스 정부를 비추다 GOVERNOR'S BUDGET PLAN SPOTLIGHTS DIVIDED KANSAS GOVERNMENT

By JOHN HANNA

Laura Kelly 민주당 주지사는 지난 목요일 캔자스 주정부 예산에 대해 공립학교에의 확산된 지원과, 메디케이드 건강보험 프로그램의 확대, 그리고 그녀가 계획하고 있는 다양한 활동을 위해 연간 연금 기금을 삭감 등을 진행하겠다고 발표했다. 7 월초 그녀가 제안한 184 억 달러 상당의 예산 청사진은 캔자스 주민들에게 분할된 주정부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그녀의 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이며 총 지출은 이전 대비 7.2 % 증가한 12억 달러이다.

예산 국장인 Larry Campbell은 국회의원들에게 “선박이 안정되기 위해서는 3 년 정도는 기다려야한다” 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공화당 의원들은 메디케이드 확대에 관한 그녀의 견해가 주정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의문을 제기하고 연금 계획안에 대해서도 70 % 미만의 자금 지원을 받는 시스템은 잠재적으로 위험하다고 평가했다. 그들은 또한 2020 년 6 월 이후의 계획이 어떻게 실행될 지에 대해 예상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 좌절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새로운 주지사의 제안에 의하면 2020 년 6 월말 경 주정부 현금 보유액은 약 6 억 6 천 6 백만 달러에 달할 것이며, 주 근로자에게 2.5 %의 임금을 인상하겠다는 핵심 공약을 실천한 이후에도 일부 예산이 남게 된다. 그러나 이는 다음 예산 연도에 연금 기금의 22 % 을 삭감해 1 억 4,500 만 달러가 절약되었다는 가정하의 시나리오이다. 2012 년 법률은 2034 년까지 주정부 예산 격차를 줄이기 위해 보다 공격적으로 연례 지급을 증가시키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를 실천

하는 데에는 난항을 겪고 있는 듯 보인다.

Kelly는 근본적으로 30 년 동안 남은 89 억 달러의 부채를 처리해 2049 년의 격차를 좁히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Campbell이 인정했듯이 이 방식은 연금 기금 격차를 줄이기 위한 국가의 장기 지출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공화당 측은 그녀의 계획을 환영하지 않는 듯 하다. 이전 Kelly에 의해 종종 재정 정책을 비판 받던 공화당 지사 Sam Brownback도 2017 년에 비슷한 아이디어를 제안했지만 큰 소득은 없었다.

Kelly가 제안한 예산은 이전 Brownback과 Jeff Colyer 전 GOP 총재와는 달리 많게는 150,000 명의 저소득층 캔자스 주민을 상대로 메디케이드를 보급할 예정이다. 그녀의 예산은 다음 예산 연도 동안 총 예산은 약 5 억 900 만 달러로 추정되지만 이는 연방 기금이 포함된 값이다. Kelly의 예산 중 주세는 1400 만 달러에 불과하다지만,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몹시 낮은 견적을 미심쩍어 하는 듯 하다. Kelly의 예산은 주 교육위원회에서 계획한 공립 교육의 확대와 4 년간 3 억 4 천 4 백만 달러의 예산 증가를 포용하고 있다. Kelly와 다른 민주당원들은 이 예산 확대가 네 개의 교육 구가 2010 년에 제출한 교육 기금 소송을 종료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Kelly의 예산이 법원을 만족시키기 위해 작성된 듯 보이나, 공화당 의원들은 정부가 세금 인상없이 지출을 지속 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한편, 새로운 기금으로 주 교육 예산은 다음 예산 연도에 5.5

퍼센트 증가하여 44 억 달러에 육박할 것이다. 또, Kelly의 계획에는 아동 복지 시스템을 위해 추가로 고용될 55 명의 사회 복지사와 주 교도소 직원의 공석을 채우기 위한 추가 인원에 대한 예산도 포함된다. 이 부서의 예산은 8.7 % 증가한 7 억 2700 만 달러가 될 것이다.

TOPEKA, Kan.

Democratic Gov. Laura Kelly outlined a proposed budget Thursday that would commit Kansas to higher spending on public schools, expand its Medicaid health insurance program — and cut the state's annual funding for public pensions to help pay for her initiatives. Kelly's release of her proposed \$18.4 billion spending blueprint for the budget year beginning in July gave Kansas residents a taste of what a divided state government is likely to look like. Her budget would be the largest ever, with total spending rising \$1.2 billion, or 7.2 percent.

Her budget director, Larry Campbell, told lawmakers that they should wait up to three years "for the ship to stabilize." GOP legislators questioned Kelly's estimates for the state's costs in expanding Medicaid and honed in on the pensions proposal as potentially dangerous for a system that is less than 70 percent funded. They also were frustrated that she produced no projections for how her plans play out after June 2020.

The new governor's proposals would leave the state with cash reserves of \$686 million at the end of June 2020. The cushion would also be there after Kelly funded her key priorities, including a proposed 2.5 percent pay raise for state workers. But that's only with a 22 percent cut in the state's funding of pensions to save the state \$145 million during the next budget year. A 2012 law committed the state to more aggressive increases in annual payments to close the gap by

2034, but lawmakers have struggled to keep the promises. Kelly essentially proposes to re-finance the remaining \$8.9 billion debt over 30 years, closing the gap in 2049. But the choice upset Republicans because, as Campbell acknowledged, it increases the state's total long-term cost in closing the pensions funding gap. Former Republican Gov. Sam Brownback — whose fiscal policies were frequently criticized by Kelly — proposed a similar idea in 2017, to no avail. Kelly's proposed budget breaks with Brownback and former GOP Gov. Jeff Colyer most notably by funding an expansion of Medicaid to cover as many as 150,000 more low-income Kansas residents. Kelly's budget projects the total cost of the expansion at \$509 million during the next budget year, but that figure includes federal funds. Kelly's budget estimates only \$14 million would come from state tax dollars, and some Republicans were incredulous at the low estimate. Kelly's proposed budget embraces a plan from the State Board of Education to phase in a \$364 million increase on public schools over four years. Kelly and other Democrats argue that it will end an education funding lawsuit filed in 2010 by four local school districts. Kelly's budget reflects the state school board's best guess on what will satisfy the court, but top Republicans question whether the state can sustain the spending without a tax increase — which Kelly promised to avoid. With the new funds, the state's education funding would increase 5.5 percent during the next budget year, to nearly \$4.4 billion. Kelly's budget also includes money for the State Department of Children and Families to hire an additional 55 social workers for the child welfare system and to fill vacancies in staff at state prisons. The department's budget would increase 8.7 percent, to \$727 million.



“상습 폭행” 조재범 전 쇼트트랙 코치 성폭행 혐의 추가

CHO JAE-BEOM SEXUALLY ASSAULTED SPEED SKATER, SHIM SUK-HEE

By 박진언: 스포츠 매니지먼트 (KU)

상습적으로 선수들을 폭행한 것으로 밝혀진 조재범 전 코치가 검찰로부터 징역 2년을 구형 받았었다. 조재범 전 코치에 폭행 사실은 작년 평창 동계 올림픽을 앞두고 심석희가 훈련 도중 상습적 폭행을 당한 뒤 선수촌을 이탈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조재범 전 코치는 지난 2011년부터 올해 1월까지 심석희를 포함한 4명의 선수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심석희는 초등학교 때부터 조재범 전 코치로부터 상습적으로 폭행과 폭언을 당한 사실을 밝혔다. 지난 12월 17일 심석희는 조재범 전 코치의 상습상해 및 재물손괴 사건 항소심 2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조재범 전 코치의 상습 폭행에 대한 증언과 엄중한 처벌을 요구

하였다. 같은 날, 심석희는 2014년 소치 올림픽 이후 여름부터 조재범 전 코치에게 수차례 성폭행과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충격적인 자료를 경찰에 제출하였다. 게다가 그 당시 심석희는 고등학교 재학 중인 미성년자 신분이었기 때문에 그녀의 주장은 더 충격적이었다. 추가적으로 조재범 전 코치는 선수 생활을 빌미로 협박해 자신의 만행을 숨겨왔다고 폭로하였다. 재판에서 상습 폭행 사실을 모두 인정한 조재범 전 코치는 이날 SBS를 통해 성폭행 및 성추행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비록 성폭행 혐의의 관해서는 아직까지 밝혀진 것은 없지만 또 다른 추가 피해자가 나오며 여론은 조재범 전 코치의 성폭행 혐의 주장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있다.

The Court sentenced Ex-short track coach, Cho Jae-beom to 10 months in prison for assaulting athletes. Meanwhile, one of victims, Shim Suk-hee who Gold medalist with South Korea's short track speed skate team, accused him of repeatedly raping her. She exposed that she had been assaulted by him since she was elementary school. Additionally, she reveals he had molested her between after 2014 Sochi Winter Olympic and before 2018 Pyeongchang Winter Olympic, which means Ex-short track coach, Cho Jae-beom, had molested her since she was 17. Moreover, he muzzled athletes

to hide his atrocity by threatening their career. His allegations were found out because just a week before the Olympic, Shim Suk-hee left the national team training center after she got punched several times by him. He admitted to assault charges on the court. However, he denied the allegation about sexual assault on the same day. Nevertheless, the public still turned their back on him. The Police agency formed special police team to investigate him over sexual assault claims.

스피드스케이팅 김보름 “왕따 주행” 사실 폭로 SPEED SKATER KIM BO-REUM EXPOSED A HARASSMENT FROM EX-TEAMMATE.

By 박진언: 스포츠 매니지먼트 (KU)

조재범 전 코치의 상습 폭행 및 성폭행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스피드스케이팅 김보름이 자신이 겪어오던 “왕따 주행” 논란에 입을 열었다. 이 논란은 지난 평창 동계 올림픽 팀 추월 준준결승에서 팀 스포츠임에도 불구하고 김보름과 박지우가 한참 뒤쳐진 팀 동료 노선영을 뒤로한 채 먼저 결승선을 통과하는 모습이 포착되며 시작되었다. 당시 팀원들 간의 팀워크가 중요한 팀 추월 경기에서 “팀워크”는 찾아볼 수 없었다. 게다가 김보름과 박지우는 경기 후 인터뷰에서 노선영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과 노선영이 이 논란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폭로하며 김보름은 국민적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그리고 1년 후 김보름은 지난 11일 채널 A “뉴스 A LIVE”에 나와 당시 노선영이 제기했던 주장을 모두 부인하며 오히려 자신이 “왕따 논란”에 피해자라 밝히며 다시 한번 논란을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김보

름은 2010년부터 작년 동계 올림픽까지 8년 동안 노선영에게 상습적으로 폭언과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노선영이 자신에게 소리를 지르며 훈련을 방해했고, 상습적으로 라커룸이나 방으로 불러 폭언하였다며 노선영의 폭언과 괴롭힘이 스케이트장 안팎 가리지 않고 이어졌다고 덧붙였다. 이에 노선영은 김보름의 폭로에 대해 황당하다는 입장을 내비치면서 최근 심석희에 대한 조재범 전 코치의 상습 폭행 및 성폭행 논란이 더 중요하기에 또 다른 논란을 만들지 않겠다며 자신을 둘러싼 논란에 말을 아꼈다. 최근 빙상연맹은 연이어 터진 논란으로 흔들리고 있다. 일부 여론은 빙상계가 감춰오던 부정부패가 결국 끓아 터졌다는 주장이다. 빙상연맹 해체까지 말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번에는 제대로 된 수사와 엄중한 처벌로 빙상연맹의 부정부패가 사라지며 쇠신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Last January, Kim Bo-ruem and Park Ji-woo left their teammate Noh Seon-yeong behind in the team pursuit quarterfinals. They passed the finish line almost four seconds faster than their teammate Noh Seon-yeong did. In that game, people could not find “Teamwork” from the Korean team pursuit. Moreover, they left the arena while Noh Seon-yeong was crying after the game and they seem to shift the blame to her in the post-game interview. That triggered growing public's anger. It was impossible for Kim Bo-ruem to dodge criticism. A year later, Kim Bo-ruem finally opened her lips about the controversy around her. Surprisingly, she claims that she was the one who got bullied by Noh Seon-yeong contrary to the dispute people used to know. On the “News A LIVE”, she reveals that “I first entered the national training center in

2010, and since that moment to 2018 Pyeongchang Olympic, I was bullied by Noh Seon-yeong for 8 years”. She added Noh Seon-yeong habitually yells at her to skate slowly and disturbs her practice. Moreover, she occasionally lashed out in her room and locker room. However, Noh Seon-yeong acted like the victim after the dissension occurred and denied Kim Bo-ruem's claims. She stopped there because she didn't want to make another scandal for her teammate Shim Suk-hee. The Korean Ice Federation has lost some sway due to a series of controversy. Some public opinion insists the corruption the Ice Federation hidden have festered. So, it remains to be seen whether the Korean Ice Federation will be reformed over controversies.

CHIEFS가 승점을 내어주며 PATRIOTS가 3년 연속 슈퍼 볼 결승에 진출하다 PATRIOTS MAKE 3RD STRAIGHT SUPER BOWL, BEAT CHIEFS 37-31 OT

By BARRY WILNER

겨울이 지나고 Patriots가 슈퍼볼 결승에 진출했다. 오랜 시간과 Tom Brady의 뛰어난 실력이 더해진 Patriots는 올해를 포함해 3년 연속으로 슈퍼볼 결승전에 올랐다. Brady는 지친 캔자스 시티의 수비를 뚫고 Rex Burkhead에게 공을 패스한 후 Burkhead가 터치다운을 성공시키며 AFC 챔피언십 경기에서 37-31의 승리를 거뒀다. 애틀랜타에서 그들을 기다리고있는 팀은 뉴올리언스에서 NFC 챔피언십에서 26-23 연장전 승리를 거둔 로스앤젤레스 Rams이다. 마지막으로 두 팀이 컨퍼런스 챔피언십 경기에서 우승한 것은 2012 년이었다. 이번 시즌 뉴 잉글랜드 Patriots는 3-5로 승리했다.

이미 슈퍼볼에 진출한 가장 연장자로 기록된 41 세 Brady는 또 한번 뉴 잉글랜드를 이끌며 65 야드를 1분 24초만에 진출해 Burkhead에게 패스, 경기 종료 39초 전 터치다운을 이끌어 냈다. 그러나 상대 팀인 캔자스 시티 Chiefs의 루키 Patrick Mahomes가 잇따라 48 야드를 전진하며 Harrison Butker에게 패스한 후 이를 필드 골로 연결시키며 종료 8초 전 동점을 만들어 냈다. 경기는 연장전으로 접어들었다.

경기의 대부분이 수비로 구성되어 있던 초반과 달리 공격적인 플레이를 보여준 후반부였다. Chiefs는 올 시즌 처음으로 연장전 게임을 펼치며 두 번이나 판정이 번복되는 에피소드도 겪었다.

Julian Edelman의 명백한 머프는 긴 비디오 판독을 거친 후에 뒤집혔다. Edelman이 Brady의 패스를 잡지 못하고 손을 맞고 튕겨나간 공이 Chiefs 선수인 Daniel Sorensen의 손에 안착하며 전세가 역전되었다. 공을 잡은 Daniel Sorensen 선수는 22 야드를 반환해 상대편 수비수가 없이 안정적으로 득점에 성공했다. 이렇게 21-17를

만든 Chiefs는 이번 경기 내 최초로 승기를 잡게 되었다.

그러나 경기 종료 3 분 30 초가 남았을 때부터 판이 쉴 틈 없이 뒤집히기 시작했다. Patriots가 오프사이드 판독에 힘 입어 라인 백커를 받으며 승리의 문턱에 있던 Chiefs의 발목을 잡았다. 결국 게임은 연장전으로 이어졌다.

Chiefs는 이번 시즌에 전반적으로 좋은 성과를 거두었지만, 경기 시작 후 30분간 집중하지 못하고 저조한 모습을 보였다. 전반전 동안 공 점유율이 9분이 채 되지 않는 8 분 53 초에 머무른 것을 보아도 이를 알 수 있다. Mahomes는 43 야드 동안 세번이나 넘어졌다; 캔자스 시티의 기록적인 루키가 고작 16번의 플레이를 통해 32 야드 밖에 전진하지 못한 셈이다. 그러나 충분한 수비가 수반된 이후 Mahomes는 Sammy Watkins에게 54야드의 성공적인 패스를 성공시켰다. 그 이후 또 다른 올 프로, 타이트 엔드 Travis Kelce에게 또 한번 성공적인 패스를 통해 14-7로 Patriots를 견제했다. 자는듯 조용하던 판중을 열광시킨 순간이었다.

지나치게 치우친 전반전 지난 주 Chargers를 일찌감치 처리하고 순항하던 Patriots는 첫 번째 시리즈에서 터치 다운과 동시에 확실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Chiefs가 Mahomes의 42 야드 패스로 마침내 승점을 얻었을 때도, 골 선 근처에서 Mahomes가 또 한번 패스를 성공시켜 승기를 쥐는 듯 싶었을 때에도 Patriots는 흔들림 없이 곧바로 추격해 결국 승리를 얻어냈다.

동전 던지기

동전 던지기에서 승리 한 후 내린 Reid의 결정은 현명하지 못했다.

전망

Patriots 는 애틀랜타로 향해

Rams와 슈퍼볼 결승을 치루게 된다.

KANSAS CITY, Mo.

It's the dead of winter and that the Patriots are headed to the Super Bowl. It took them over-time and more of Tom Brady's brilliance to get there — for the third straight year. Brady blew through Kansas City's exhausted defense on a 75-yard drive to Rex Burkhead's 2-yard touchdown run in a 37-31 victory Sunday for the AFC champion-ship. Awaiting them in Atlanta are the Los Angeles Rams, who won 26-23 in overtime in New Orleans for the NFC championship. The last time both visitors won conference championship matches was 2012; New England was 3-5 on the road this season. Brady, at 41 already the oldest quarterback to have played in a Super Bowl, drove New England 65 yards in 1:24 to Burkhead's go-ahead 4-yard touchdown with 39 seconds left in regulation. That was enough, though, for his far younger counterpart, the 23-year-old All-Pro Mahomes, to take the Chiefs 48 yards to Harrison Butker's 39-yard field goal with 8 seconds left to force overtime.

It was a sizzling offensive showing in the fourth quarter after defense had been in charge most of the way. Indeed, the Chiefs were blanked in the opening half for the first time all season. And they never saw the ball in overtime, which along with the two replay decisions might call into play NFL rules and officiating.

An apparent muff by the usually reliable Julian Edelman on a fourth-quarter punt return was overturned by a lengthy video review. Edelman definitely touched his next try when Brady's pass deflected off his hands directly to safety Daniel Sorensen. His 22-yard return set up Kansas City at the Patriots 23, and Damien Williams, who scored

three times, had no defender near him down the left sideline for the score that made it 21-17, KC's first lead.

With 3½ minutes remaining, there was plenty of time for more points. The Patriots were helped by an offside call on linebacker Dee Ford that negated an interception which would have clinched a KC victory. Butker's field goal sent it to overtime. The Chiefs hadn't been blanked in any half this season, but they barely were a presence in the first 30 minutes, when they had the ball for 8:53. Mahomes was sacked three times for 43 yards; Kansas City's record-setting attack ran only 16 plays and gained a mere 32 yards. Finally given solid protection, Mahomes unleashed a 54-yard completion to Sammy Watkins over All-Pro cornerback Stephon Gilmore. He then hit another All-Pro, tight end Travis Kelce, on a slant to make it 14-7 — and awaken the slumbering crowd.

LOPSIDED FIRST HALF

Just as they did last week in manhandling the Chargers early and cruising, the Patriots delivered a message — and a touchdown — on their first series. When the Chiefs finally got a trademark big play on Mahomes' 42-yard completion to Hill, it went for naught. Mahomes over-threw a wide-open Williams near the end zone, then took a 14-yard sack to send KC out of field goal range. The Patriots kept dominating the line of scrimmage.

COIN TOSS

Reid's decision to defer after winning the opening coin toss proved unwise as New England had 22 plays in the opening period, and Kansas City had seven.

UP NEXT

The Patriots head to Atlanta to play the Rams in the Super Bowl.



중국 달 탐사선이 달의 '어두운' 면에 빛을 비추다 CHINA LUNAR PROBE SHEDS LIGHT ON THE 'DARK' SIDE OF THE MOON

By KEN MORITSUGU

중국의 급성장하는 우주 계획은 목요일에 달의 이정표를 이뤘다. 미스테리로 여겨지던 달의 뒷면에 탐사선을 착륙시킨 것이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지구에서는 볼 수 없는 달의 뒷편에서 우주를 탐색하면 궁극적으로 태양계 초기 형태를 비롯해 우주 최초의 별 탄생 과정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중국 국가 우주국 (INS)은 창어 4호의 달 착륙이 "인간의 달 탐사에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말했다. 오전 11시 40분에 창어 4호가 보내온 사진을 보면 작은 분화구와 불모의 표면이 달 탐험가의 빛에 비춰 보인다. 달의 뒷면에 탐사선을 보낼 경우 발생하는 문제 중 하나가 지구와의 통신이므로 중국은 5월에 중계 위성을 발사하여 창어 4호가 원활하게 정보를 돌려 보낼 수 있도록 했다.

중국 언론과 관계자들은 12월 8일 창어 4호의 발사가 2018년 국가의 주요 성과 중 하나라고 환영했다. 한편, 달 착륙 CCTV영상이 방영된 지 1시간 이상 동안 대중은 착륙 자체에 대한 긴장감을 놓지 못했다. 정오 뉴스에 공식적인 착륙 소식이 전달되기까지 이미 중국과 해외의 소셜 미디어에서 의심의 목소리가 확산되기 시작했기 때문이었다.

퍼듀 대학교의 달과 행성 과학자인 Jay Melosh 교수는 우주선 자체

가 위험한 달 표면에서 안전한 장소를 선택해 착륙하는 기술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번 달 착륙은 학계에서 "큰 이슈"가 되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2013년 전임 우주선 창어 3호는 1976년 소련의 루나 24 이후 최초의 달 착륙을 성공했다. 현재까지 달에 우주 비행을 성공적으로 파견한 국가는 미국이 유일하며, 2019년은 아폴로 11호 탄생 50주년이다. 그러나 중국도 곧 우주 비행을 동반한 임무도 고려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내년 5월에 창어 5호 탐사선을 달에 보내 샘플을 가지고 지구로 돌아갈 계획인데, 이 또한 1976년 소련 이래로 행해지지 않는 것이다.

달의 "어두운" 면은 지구에서 보이지 않으며 상대적으로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대중적으로 어둡다는 명칭이 붙었으며, 햇빛이 닿지 않기 때문에 붙인 이름은 아니다. 창어 4호는 착륙과 탐사가 가능한 우주선으로 천문 관측 하고 토양 구성을 조사하는데 사용될 예정이다. 이 우주선은 가장 오래된 알려진 충돌 지역인 South Pole-Aitken 분지에 착륙했다. 과학자들은 39억년 부터 44억년 사이에 존재했던 후기 대폭격기라 불리는 태양계 역사의 한 시대를 더 잘 이해하는데 탐사선이 사용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후기 대폭격기는 우주 암석들이 지구를 포함한 태양계 행성들과 충돌

하던 시대를 의미한다. 이 충돌 지대의 나이와 화학 성분을 알면 지구의 고대사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다고 Purdue의 Melosh가 주장한다. 창어 4호는 또한 천문학과 기여할 수 있다. 중국은 러시아와 미국에 이어 2003년 최초의

우주 비행 임무를 수행했고 두 개의 우주 정거장을 궤도에 올리는데 성공했다. 2020년 중반 화성 탐사선을 발사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 한편, 중국의 우주 계획은 작년 3월 5일 Long March의 로켓 발사 실패로 인해 드문 난관을 겪었다.

BEIJING

China's burgeoning space program achieved a lunar milestone on Thursday: landing a probe on the mysterious and misnamed "dark" side of the moon. Exploring the cosmos from that far side of the moon, which people can't see from Earth, could eventually help scientists learn more about the early days of the solar system and maybe even the birth of the universe's first stars.

The China National Space Administration said the 10:26 a.m. touchdown of the Chang'e 4 craft has "opened up a new chapter in human lunar exploration." A photo taken at 11:40 a.m. and sent back by Chang'e 4 shows a small crater and a barren surface that appears to be illuminated by a light from the lunar explorer. One challenge of sending a probe to the moon's far side is communicating with it from Earth, so China launched a relay satellite in May to enable Chang'e 4 to send back information.

Chinese media and officials hailed the Dec. 8 launch of Chang'e 4 as one of the nation's major achievements in 2018. The public was kept in suspense about the landing itself for more than an hour after it occurred, with state broadcaster CCTV announcing it at the top of the noon news. By that time, speculation already had begun spreading on social media in China and overseas.

The landing was "a big deal" because it used an engineering technique of the spacecraft itself choosing a safe place to touchdown in treacherous terrain, something called autonomous hazard avoidance, said Purdue

University lunar and planetary scientist Jay Melosh.

In 2013, the predecessor spacecraft Chang'e 3 made the first moon landing since the former Soviet Union's Luna 24 in 1976.

The United States is the only country to successfully send astronauts to the moon — 2019 will mark the 50th anniversary of the Apollo 11 lunar landing — although China is considering a crewed mission too. For now, it plans to send a Chang'e 5 probe to the moon next year and have it return to Earth with samples — also not done since the Soviet mission in 1976.

The moon's far side is sometimes called the "dark side" in popular culture because it is always unseen from Earth and is relatively unknown, not because it lacks sunlight. Chang'e 4, a combined lander and rover, will make astronomical observations and probe the composition of the soil. The spacecraft landed in the South Pole-Aitken basin, the oldest known impact zone. Scientists want to know how old — somewhere between 3.9 billion and 4.4 billion years old — to better understand a period in the solar system's history called the late heavy bombardment. That's when space rocks were careening off each other and crashing into moons and planets, including Earth. Knowing the age and chemical composition of this crash zone would help understand Earth's ancient history better, said Purdue's Melosh. Chang'e 4 could also contribute to radio astronomy. China conducted its first crewed space mission in 2003, following Russia and the U.S. It has put two space stations into orbit and plans to launch a Mars rover in the mid-2020s. Its space program suffered a rare setback last year with the failed launch of its Long March 5 rocket.



여성들이 항해를 E-스포츠의 장벽인 유독성을 해쳐나가다

WOMEN NAVIGATE TOXICITY, OTHER BARRIERS IN ESPORTS

By JAKE SEINER

엔터테인먼트 소프트웨어 협회(The Entertainment Software Association)는 올해 미국 전체 게이머의 45%가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프로 e스포츠 선수 중의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고했다. 리그 오브 레전드나 오버워치 같은 게임들은 임원은 선수가 수십만 달러를 벌 수 있는 프로 명단에 여성들이 추가되기를 열망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롤(리그 오브 레전드의 줄임말) 챔피언십 시리즈에는 2016년부터 여성 게이머가 단 한 명도 없었으며, 오버워치 리그 첫 시즌의 여성 참가자는 단 한 명에 그쳤다.

게임 산업은 2014년 남성 플레이어들이 조직을 이루어 여성 플레이어를 희롱하거나 유독성 행동을 하는 등 Gamergate 스캔들에 시달려왔다. 엘리트 게이머의 경우 대부분 팬들이 유독성 행위의 주범이지만 상대방과 팀원 마저도 때때로 여성이 살아남기 어려운 환경을 조성하고는 한다. 게임상 낮은 레벨의 여성 플레이어들은 대부분 익명으로 가동되는 사이버 공간에서 남성성 과잉에 의해 공격을 받는다.

한편, Susie Kim의 London Spitfire가 6월 개최된 첫 번째 오버워치 리그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절대적으로” 뛰어난 여성 플레이어들이 존재함을 세상에 입증했다.

최정상 플레이어
주요 e스포츠 최정상 레벨에 여성 플레이어들이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NBA 2K League는 첫 번째 시즌 250명의 결선 진출자 중 단 한 명만이 여성이었다고 밝혔다. 그녀는 다음 라운드에 진출하는 102명 안에 들지 못했다. 오버워치의 첫 리

그에는 상하이 드래곤즈 팀의 일원으로 “계구리” 김세연 선수가 유일한 여성 선수로 참가했다. 스타크래프트 2의 토너먼트에서 우승을 차지한 “스칼렛” 사샤 호스틴은 비슷한 수준의 리그에서 우승을 차지한 유일한 여성 선수이다.

일반 플레이어
티파니 장은 앞서 언급된 김세연 선수의 팬이다. 그녀는 자선을 위한 기부금을 모으기 위해 오버워치 및 기타 게임을 하는 방송을 트위치로 스트리밍하고 종종 낮은 사람들과도 온라인으로 게임을 한다. 티파니와 같은 여성들은 많은 유독성 행동에 시달리고 있으며, 인터넷 상에 만연한 외모 비하, 목소리, 혹은 게임 상 능력과 지식 등을 비하하거나 폄하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받고 있다. 그녀가 성희롱과 같은 악의적 행동을 어느 정도 차단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환경에서 훌륭한 퍼포먼스를 선보이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롤 혹은 오버워치와 같은 E스포츠는 게임의 성과가 팀워크와 전략에 크게 의존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각 플레이어는 캐릭터를 선택하며, 공격, 지주 또는 치유와 같은 특정 역할을 분담한다. 뛰어난 e스포츠 팀은 어느 스포츠 팀과 마찬가지로 훌륭한 방어와 공격을 모두 갖춰야 할 때 만들어진다. 티파니 장이 단순히 팀을 도우려 할 때도 종종 그녀가 어떤 역할을 맡는지도 불분명해 지기 십상이다. 이는 여성 게이머들의 공통적인 불만 사항이며, 만약 다른 플레이어들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한다면 충분한 실력을 발휘하기 어려워 경쟁 영역에서 플레이어의 순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가능한 해결책

게임 개발자들은 Gamergate 스캔들 이후 특정 플레이어를 향한 불공평한 대우가 있지 않도록 하는 노력과 진전을 보였으나 비디오 게임은 여전히 남녀에게 평등하게 열려진 공간이 아니다. 롤을 개발하고 LCS를 운영하는 라이엇 게임즈는 올 여름 Kotaku의 이야기에서 여성 직원에게 부당한 대우를 해 비판을 받은 전례가 있다. 라이엇 게임즈는 팬과 직원들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했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행동 계획을 발표했다.

여성 플레이어들은 남성 플레이어들이 온라인 게임의 익명성이 없으면 선하게 행동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한다. Laskys는 익명성의 부재가 팀이 얼굴을 맞대고 경쟁하기 위해 영화관에 모이는 슈퍼 리그 대회의 이점 중 하나라고 주장했다. 프로 수준에서의 문제는 엘리트 팀의 주거 상황이다. E스포츠의 선수들은 종종 멋진 팀 주택에 배치되지만 여성과 남성이 생활 공간을 공유하는 것은 많은 여성들에게 이상적이지 않다. 팬들은 남녀 차별의 장벽을 깨려는 여성 게이머를 단순한 PR 곡예사로 일축 시켰으며, 홀로서기를 하고 있는 여성 플레이어들이 짝어지는 무게는 더욱 커지고 있다.

NEW YORK

The Entertainment Software Association reported this year that 45 percent of U.S. gamers are female, yet women make up a scant portion of the professional esports player pool. Executives for games like "League of Legends" and "Overwatch" say they are eager to add women to pro rosters, where players can make hundreds of thousands of dollars. Yet LoL's Championship Series hasn't had a female gamer since 2016, and the Overwatch League's inaugural season featured just one. The industry has grappled with harassment and toxic behavior since the Gamergate scandal of 2014, when a group of male gamers organized to target women throughout the industry. For elite gamers, much of it comes

from fans, but opponents and teammates are sometimes just as challenging. At the lower levels, women are often bombarded by hyper masculinity in a space where most everyone is anonymous.

Susie Kim's London Spitfire won the first Overwatch League championship in June. Speaking to The Associated Press before the grand finals, she said there are "absolutely" women talented enough to be playing in the Overwatch League.

AT THE TOP

Major esports have thin histories of women at the highest levels. The NBA 2K League said it had one woman in a pool of 250 finalists for roster spots in its inaugural season. She did not land one of the 102 available slots. The Overwatch League had one woman for its inaugural season, Kim "Geguri" Se-Yeon with the Shanghai Dragons. Sasha "Scarlett" Hostyn won a major "Starcraft II" tournament in February and is the only woman to win such an event in that game.

AT THE LOWER LEVELS

Tiffany Chang is a fan of Se-Yeon's. Chang hosts Twitch streams of herself playing "Overwatch" and other games to collect donations for charity, and routinely plays online against strangers. Women like Chang encounter a lot of toxic behavior, much of it the same sort of trolling women see elsewhere on the internet. They'll get remarks about their appearance, the tone of their voice, and more than anything, a dismissal of their ability and knowledge in the game.

Even if Chang can tune out the harassment, it can still affect her performance. Esports like LoL and "Overwatch" are heavily teamwork and strategy dependent. Each player chooses a character, and those characters are designed for specific roles, like attacking, holding territory or healing. A good "Overwatch" team

미로에 갇힌 인생

김경민목사

오디세이의 그리스 신화인 테세우스 영웅전에 미노타우로스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노타우르스는 얼굴은 황소이고 몸은 사람인 반신반인입니다. 미노타우로스 이야기는 크레타 왕 미노스가 바다의 신인 포세이돈에게 바쳐야 했던 황소를 가로챈 것에서 시작합니다. 크레타 왕 미노스가 황소를 바치지 않고 가로챈 것에 화가 난 바다의 왕 포세이돈이 크레타 왕 미노스의 아내인 파시파에게 마법을 걸어 황소와 사랑에 빠지도록 합니다. 그렇게 태어난 존재가 얼굴은 황소이고 몸은 사람인 미노타우로스입니다. 크레타 왕 미노스는 이렇게 태어난 괴물을 미로로 가득한 미궁인 라비린토스에 가두어 버리고 평생 빠져나오지 못하게 합니다. 미노타우로스는 이 미로 속에서 살다가 테세우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처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미로 속에 사는 반신반인인 미노타우로스는 우리네 인생을 단편적으로 보여줍니다.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미노타우로스는 인간이기도 하면서 동물입니다. 반대로는 인간도 아니고 동물도 아닙니다. 어느 곳에도 속하지 못하는 애매한 존재입니다. 인간에게도 이러한 양면이 있습니다. 인간 이성을 가지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올바르게 살아가기도 하지만 동물적 감각에 따라서 절제하지 못하고 무분

별한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또 삶과 죽음의 한계입니다. 미노타우로스는 미로에 갇혀 있습니다. 미로 안에서는 자유가 있는 것 같지만 미로 밖으로 나올 수 없는 한계에 갇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자유가 있는 것 같지만 삶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늘 갇혀 살아가는 한계가 있습니다. 삶과 죽음의 굴레에서 절대로 벗어나갈 수가 없습니다.

미노타우로스를 통해 삶의 의미와 가치를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명확히 하지 못하고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갈지 모르고 세상의 미로에 갇혀 사는 것이 우리네 헛된 인생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노력한다고 해서 정체성이 분명해지지도 않고 힘쓰고 애쓴다고 해서 삶과 죽음의 미로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제주도에 있는 미로 게임장에 실제로 가본적이 있습니다. 미로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여기 저기로 숨을 헉헉대면서 열심히 뛰어봅니다. 하지만 뛰어볼수록 힘이 들뿐입니다. 물론 그렇게 뛰어다니면서 출구를 찾는 것 자체를 즐거움으로 여긴다면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뛰어도 출구를 찾을 수 없이 계속 방황하기만 한다면 의미가 없는 것이겠죠. 열심히 뛰어다닐 때 누군가가 저 멀리에서 길을 알려주면 정말 편안하고 미로 탈출해 가는 것이 재미가 있습니다. 길을 알려주는 사람은 미로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저 멀리 높은

곳, 미로 밖에서 미로를 한 눈에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미로 전체를 보고 미로 안에 있는 사람의 위치를 보기 때문에 충분히 길을 알려 주는 것입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내려다보고 계시지 않을까요? 미로 안에서 아무리 뛰어도 벗어나갈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안타까운 눈으로 보고 계시지 않을까요?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하신 이유는 미로에서 죽을 수 밖에 없는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생명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되었다는 정체성이 분명해 질 것이고,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어서서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 나라에서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인생의 미로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캔사스순복음교회
담임목사: 김경민
1424 S. 55th St. KCK
714-313-6259
kansasfgc@gmail.com
www.kcmusa.org





-Continued from page 27

needs tanks and healers, just like a football team needs quarterbacks and left tackles. In certain games, it becomes impossible for her to assume any role, even if she's simply trying to help the team. It's a common complaint from female gamers, and that lack of trust can sink a team and affect players' rankings in the competitive sphere.

WHAT CAN BE DONE

Publishers have made progress responding to harassment complaints since the Gamergate scandal, but video games are still not a space known for gender equality. Riot Games, which publishes LoL and operates the LCS, was criticized just this summer for its treatment of female employees in a story by Kotaku. Riot apologized publicly to fans and employees, and it has outlined a plan of action to address the issues.

Women say men and boys tend

to be better behaved without the anonymity of online play. The Laskys think that's one benefit of the Super League competitions, where teams gather at movie theaters to compete face-to-face. One issue at the pro level is the housing situations for elite teams. Esports athletes are often placed in swanky team housing, but sharing a living space with a group of college-aged men isn't ideal for many women. Fans have eagerly dismissed barrier-breaking female gamers as mere PR stunts, and the weight is even greater on women when they find themselves alone on that platform.

캔사스 시티 종교단체 주소록

캔사스 한인천주교회 (Raymond Raewon Kim)
 담임 신부: 홍진 (베드로 주임신부) 105 SE 421st Rd.
 9138 Pflumm Rd., Lenexa Warrensburg 64093
 913-912-2574(c)/913-563-7896 660-429-6511 / 660-864-3638 (c)
 honghjin@daum.net krwpreach@hanmail.net
 KCCNewMember@gmail.com www.cmkbc.org

레반월스감리교회 **베델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최진호 (Jin Ho Choi) 담임목사: 김아브라함
 1526 10th Ave. (Abraham Kim)
 Leavenworth 66048 9595 W95th St, OP
 913-682-7007/913-705-0604(c) 913-617-3987/913-940-9188(c)
 vic223@naver.com Shalom4abraham@yahoo.com

레반월스순복음교회 **캔사스뉴비전교회**
 담임목사: 김한규 (Hankyu Kim) Kansas New Vision Church of the
 1000 N 10th St. Nazarene
 Leavenworth 66048 담임목사: 박근영
 913-682-3766 (Rev. Geun Young Park)
 mauifullgospel@yahoo.com 8200 W. 96th Street, OP 66212
 816-315-4174

로랜스한인장로교회 knvc2008@gmail.com
 담임목사: 이성환 www.ksnvc.com
 445 Lyon St., Lawrence 66044 facebook.com/KansasNewVi-
 443-910-2732(c) sionChurchoftheNazarene
 www.lawrencechurch.org

미주리중앙침례교회 **캔사스 뉴헤이븐 SDA 한인교회**
 Central Missouri Baptist Kansas New Haven Church
 Church 담임목사: 정한철 (Harold Kim)
 담임목사: 김래원 8714 Antioch Rd, OP 66212
 전화: 913-730-0190

facebook.com/kcsdanewhaven

캔사스선교교회
 Kansas Mission Church
 담임목사: Rev. Yohan Lee 이요한
 김예반 (Evan Kim, 영어부)
 8841 Glenwood St., OP 66212
 913-648-9191/ 339-440-2696(c)
 www.kansasmission.org
 facebook.com/KMCCHURCH

캔사스순복음교회
 담임목사: 김경민
 1424 S. 55th St. KCK
 714-313-6259
 kansasfgc@gmail.com
 www.kcmusa.org

캔사스안디옥나사렛교회
 담임목사: 이은철 (Eun C. Lee)
 2737 S. 42nd St., KCK 66106
 913-831-6779 / 913-206-6631(c)
 Tim0921@gmail.com
 http://kansasantioch.org

캔사스시티임마누엘감리교회
 담임목사: 허장 (Jang Hur)
 4900 Antioch Rd., Merriam 66203
 913-631-1004 / 913-206-6880(c)
 hjang212hanmail.net

캔사스시티한인침례교회

Kansas City Korean Baptist Church
 담임목사: Insung Jeon (전 인 성)
 3817 N. Wayne Ave, KCMO 64116
 816-452-1906

캔사스영락교회
 담임목사: 이춘석 (Chun Suk Lee)
 3000 S 55th St, KCK 66106
 913-265-9030
 myloveisrael@gmail.com
 www.ksyoungnak.org

캔사스우리교회
 담임목사: 장현희 (Hyunhee Chang)
 10100 Metcalf Ave. OP 66212
 913-299-7246
 kwoorich@gmail.com
 www.kwoori.org

캔사스 한인 중앙 연합감리교회
 담임목사: 김다위 (Dawe Kim)
 9400 Nall Ave, OP 66207
 913-649-2488/816-304-2113(c)
 centralkoreanchurch@gmail.com
 facebook.com/ckumc

캔사스제일장로교회
 담임목사: 신수철 (Soo C. Shin)
 4505 Gibbs Rd., KCK 66106
 913-369-5959/816-560-8619

sooshin@msn.com

캔사스제일침례교회
 담임목사: 하병진 (Byung J, Ha)
 15902 Midland Dr.
 Shawnee 66203
 913-962-9125/913-406-0586(c)
 habyoungjin@yahoo.com

캔사스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강일경 (Kyle Y. Kang)
 2002 51st St., KCK 66106
 913-236-7636/ 13-653-7077(c)/
 (213) 505-7434(Director)
 kpckan@gmail.com
 www.kpck.org

토피카 한인침례교회
 담임목사: 임성택 (Seoung T. Lim)
 735 SW Oakley Ave.
 Topeka 66606
 785-235-8738/859-556-3555(c)
 samuel3280@gmail.com

캔사스 새생명 교회
 담임목사: 최안성 (Ansung Choe)
 2611 S. 31st St
 Kansas City, KS 66106
 816-800-1985(c)/504-875-0737
 choeansung@hotmail.com
 kansasnewlifechurch.org

무료 광고 / CLASSIFIEDS

TO POST SEND DETAILS TO:

보내주세요 KIM@CKKOREANJOURNAL.COM

무료 광고란은 모든 독자들에게서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장터입니다. 생일, 돌잔치, 부고, 중고 물건 매매 등 모든 알리를 편하게 알려주시면 무료 한줄광고로 귀하께 실어드립니다. 편하게 애용해주시고 보내실 곳은 kim@ckkoreanjournal.com 입니다.

FREE classified is a FREE marketplace for all KCKJ readers. Please send your notices for birthdays, anniversaries, obituaries, used items for sale, etc. Submit your announcements via email to kim@ckkoreanjournal.com

구인,구직 / JOBS / Help Wanted

New Korean Asian Restaurant in Downtonwn/Crossroads hiring servers! Mila 720.366.8925

SUSHI KO LAWRENCE 에서 서버 하실분 구합니다
GOOD PAY, GOOD TIP
785-991-0081

가사도우미 구함
오버랜드 파크 남쪽, 135번가와 메카프 애브뉴 근처
일주일에 두 번 4시-7시 사이에 간단한 저녁 식사 준비 도와주실 가사도우미 구합니다.
연락처 301-395-5868

Gangnam Korean Restaurant에서 서버 하실분을 구합니다.
Full time/Part time
(무/경력자 환영)
913-383-8888 ask for Chase.

Maru Sushi 에서 서버 하실분을 구합니다.
913-258-5879

의류수선 경력자 구합니다.
North Kansas City (I-29, NW 64th St)에 위치한 Alteration shop 에서 일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816-584-0845

VIVA FASHION 밝고 긍정적인 성격으로 성실하게 오랫동안 함께 하실분을 모집합니다.

KANSAS CITY / OLATHE / INDEPENDENCE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주세요.
(ALEX or JINNY 913 - 287 - 8008)

에서 맡아서 일할 사람을 찾습니다
Hiring for immediate position.
Call/전화하십시오 816 - 861 - 2223
Dollar and TNS Beauty
(2928 Prospect Ave. KC, MO)

캔사스 경로대학에서 댄스, 체조, 취미활동, 건강 강의 등으로 재능을 기부해주실 분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913-236-7636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We are an authorized METROPCS dealer in KCMO Area. We have over 20 STORES. I am currently looking for Assistant Operation Managers/ Store Managers/ Sales Rep.

Need to be able to speak English. Also, looking for anyone that would like to open a MetroPCS STORE, or purchase opened STORES. 우리는 KCMO 지역의 METROPCS 공인 대리점입니다. 우리는 20 개 이상의 점포가 있습니다. 현재 Assistant Operation Managers / 매장 관리자 / 영업 담당자를 찾고 있습니다.영어를 할 수 있어야합니다. 또한, Metro PCS 매장을 열거 나 열 저장소를 구입하고자하는 사람을 찾고. Ben Kim, General Manager - Tomorrow
Mobile Cell - 512.906.6106
1622 Central Ave., Kansas City, KS 66102

Janitorial Services Company. 사무직0명, 매니저0명. 영어 가능자. 트레이닝 해드립니다, 일단 전화로 상담해 보세요.
Call (913)980-3043

eMaids of KANSAS CITY HAS HOME/OFFICE CLEANER POSITIONS OPEN! eMaids of Kansas City, is looking for: honest, friendly, motivated and experienced individuals for Home/Of-

Office Cleaning. Applicants don't need to be fluent in English, but we prefer that they speak some English so that our clients can communicate with our team. We pay between \$11.00 - \$15.00 per hour (Plus Tips) after training. Plus we pay weekly. Must present valid ID / Social Security Card. Must pass a background check and have reliable transportation. Contact us by emailing eMaidsJOBSCK@gmail.com or calling 913-871-5755.

Help Wanted Star Beauty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고 열정있으신분 찾고 있습니다. 같이 일하고 싶거나 관심 있으시면 여기로 연락주세요. (Full Time/Part-Time position available)
816-931-4747 ask for John or Josh

Polished Nails and Wax: Looking for full and part time technicians for nails, waxing, and facials: experience is a plus. Call 913.681.6245 and ask for Stephanie

서비스 / SERVICES

Jo's Auto Body Shop
We buy used and junk cars and trucks! Mon-Sat 9am-7pm, 3333 Stadium Dr. KC, MO 64128, 816-923-0330 / 816-686-4046
jeongpanjo@gmail.com Pan Joe Jeong

Prepare & Enrich 예비부부 결혼 전 교육 (Premarital Education by English/Korean)
주제: 예비부부의 마음 준비(Mind Preparation for A Happier Marital Life)
대상: 결혼을 앞두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해 서로의 마음을 함께 준비 하길 원하는 예비부부 (Any couple who want to be mentally well prepared for their marriage)
시간: 매주 1회 1시간씩 (기간: 최

대 12주) Weekly for 12 weeks at most.

인도: 미드웨스턴 상담학과 교수 (A seminary professor of counseling)
장소: 미드웨스턴신학대학원 코엔&마이어 센터 (Kohen & Myers Center, Midwestern Seminary)
문의: 816-414-3830 (낮시간 통화/부재시 음성 메시지 녹음)

부모 써포트 그룹(Support Group)*
주제: 자녀 교육 및 양육
대상: 부모로서 자녀 교육과 양육에 관련한 고민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자녀 연령별로 모임)

시간: 매주 1회 1시간씩 (기간: 12주)
인도: 미드웨스턴 상담학과 교수
장소: 미드웨스턴신학대학원 코엔&마이어 센터
문의: 816-414-3830 (낮시간 통화/부재시 음성 메시지 녹음)

*써포트 그룹이란 5명 정도의 소그룹으로 같은 고민을 가진 분들이 함께 편안한 대화를 나눔으로써 서로에게 정서적인 힘이 되어주는 모임입니다.

갱년기 써포트 그룹(Support Group)*

주제: 갱년기 관련 감정 변화
대상: 갱년기 관련 감정 변화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분(성별 따로 모임)

시간: 매주 1회 1시간씩 (기간: 12주)
인도: 미드웨스턴 상담학과 교수
장소: 미드웨스턴신학대학원 코엔&마이어 센터
문의: 816-414-3830 (낮시간 통화/부재시 음성 메시지 녹음)

*써포트 그룹이란 5명 정도의 소그룹으로 같은 고민을 가진 분들이 함께 편안한 대화를 나눔으로써 서로에게 정서적인 힘이 되어주는 모임입니다.

업소 매매 / BUSINESS FOR SALE

RETAIL STORE FOR RENT
10413&10415 BLUE RIDGE BLVD
KC, MO 64134
MOVE IN READY!
FOR MORE INFORMATION
CALL JIN KIM 860-478-7035

Victoria's Nails and Spa
Shawnee, Kansas
Regular and very friendly clients
- 90% tip in cash
* 5 Pedicures chairs
* 6 Manicures tables
* 1 Wax room
Please contact call/text: Lily
(816)809-6120

Cafe for sale locate at Overland Park office building. Good location and business, well maintained. Owner need to retire and move please call 913 963 2889 for more information.
좋은 입지 조건을 갖춘, 현재 성업중인 오버랜드 파크 오피스 건물에 위치한 카페를 개인적인 사정 (은퇴) 으로 매매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Tel: 913-963-2889

Dry cleaners in metro Kansas City area. Excellent set of equipment plus profitable route with lots of growth potential. \$250,000 for everything. Excellent lease available. Call Tom at FNBC 816 799 0911

세탁공장 매매 (dry cleaning plant for sale)
Location (위치): Olathe KS
Cal or Text: (913)549-0036
가격 : \$150,000.00

휴대폰 가게 매매(Metro PCS): 캔자스 시티 지역 휴대폰 가게를 매매합니다. 여러지역에 가게 있음(St. Joseph, Topeka, Raytown, Olathe, Merriam, Lawrence, Overland Park). 소액투자로 큰 돈을 벌수 있는 기회입니다.
연락 주세요연 황(Yeun Hwang): 425-496-4040.

하숙 / BOARDING

캔자스 민박 및 하숙-방5개, 화장실 3개, 거실, 페미리룸, 다이닝룸이 있으며 넓은 뒷마당이 있습니다.
연락처: 이메일 10sweetpotato24@gmail.com

하숙합니다
방 3개, 화장실 3개, 라이드 가능함

니다
편의 시설: 라운드리, 인터넷, 파킹랏 II-35, 210 HWY, I-29, I-635
하이웨이가 가까운거리에 위치한
전화번호 913-244-8362

학원 / INSTRUCTORS

캔자스시티 한국학교 Kansas City Korean Language Institute
8841 Glenwood St. Overland Park, KS 66212 캔자스 선교교회 선교관내 교장: 이명희
Principle: Myounghee Lee
이메일: leesaltkr73@gmail.com
전화번호: 816-469-8110

쿠몬 학원 Kumon Academy
대상: 3살 부터 18 세까지 Ages: 3-18
과목: 영어및 & 수학
Subjects: English & Math
* 학생 자신이 공부하는 방법을 터득하며 자신감을 동시에 증진시켜 줌. Students learn how to study and improve learning skills at the same time enhance self-confidence.

* 세계에서 가장 큰 과외학습학원 (현재 4000개 학원에서 삼십만명의 수강생이 등록. The biggest extra-curricular learning academy in the world (30 million students are currently registered at the 4000 Academies).
* 무료 diagnostic test 및 무료 오리엔 테이션 Free Diagnostic tests and complementary orientation.
*전화 913 897-1111

New Art Class 미술 수업안내 pre-k~ 12th, 성인반 모집
다년간 입시지도 및 대학강의 경력의 박 사출신 선생님과 전문 일러스트레이터 작가 선생님의 체계적인 미술수업 상담문의
816-646-1376/816-294-4283
artstudioianusa@gmail.com

Golf 개인교습 : 김준배 PGA 전문 골프 코치(PGA certified instructor)-오버랜드 파크와 샌앤드류 골프장의 수석 코치, 캔자스(Midwest PGA Section)의 유일한 PGA 인증 전문 골프코치.(개인교습문의 913-558-

7997)
Golf Private Lesson: Mr.JB KIM.
*US KID TOP 50 Teacher Award/
TPI Golf Mechanic LEVEL 2 Certified Teacher www.golfop.com, jbkjgolf@gmail.com,
913-897-3809, 913-558-7997

NLI에서 "Study Help" 프로그램은 운영합니다. 초등/중등/고등학교 학생들의 학교숙제를 돕고, 영어학습 (Reading, Speaking, Listening, Writing)을 도와드립니다. (문의: 913-449-2233)

NLI에서 언어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중국어, 인도어, 스페인어, 독일어, 포르투갈어(Chinese, Hindi, Spanish, German, Portuguese)를 가르칩니다. (문의: 913-449-2233)

NLI에서 교과목 과외합니다. Math, Geometry, Algebra, Calculus, Science, Chemistry, Physics, Biology
문의: 913-449-2233

사회 / COMMUNITY

한인단체장 목록 황장 안경호
캔자스 시티 한인회
Korean-American Society of G.K.C.
7800 Shawnee Mission Pkwy
Mission, KS 66202

캔자스 상록회 (회장 정영로)
Korean Senior Citizen Society
6800 Alden St, Shawnee KS
66216

캔자스 한인 상공 회의소 (회장 공석)
916 Minnesota Ave. KC, KS

캔자스시티 한국학교 Kansas City Korean Language Institute
8841 Glenwood St. Overland Park, KS 66212 캔자스 선교교회 선교관내 교장: 이명희
Principle: Myounghee Lee
이메일: leesaltkr73@gmail.com
전화번호: 816-469-8110

캔자스 시티 목회자 협의회
(회장 김아브라함 목사)
2002 S 51st St. KC, KS 66106
913-653-7077
Kpckan@gmail.com

KCKJ 알림

* KCKJ와 함께 광고해 주세요.
- 귀한 캔자스 한인 들의 업소를 특별가로 광고해 드립니다.
- 문의 913-802-2005 ,
kim@kckoreanjournal.com



원고 모집
원고를 모집합니다. 새롭게 태어난 kckj는 한인 여러분의 소리를 적극적으로 담고자합니다. 다양한 분야에 관한 여러분의 글들을 500단어 내외로 자유롭게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투고를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지면상 내용과 길이는 편집될수 있습니다.)
kim@kckoreanjournal.com 로 제출해주세요
Essay Submission
Do you have a talent for writing? KCKJ is accepting essays (about 500 words) from our readers. (We reserve right to edit) Please submit to kim@kckoreanjournal.com

캔자스 한인 체육회 (회장 김대중)
Korean American Sports Council of Kansas

캔자스시티연합성가단 (단장 이영애)
Korean Choir of the Greater Kansas City

캔자스 한국 문화회관 건립 협회 (회장: 민상기) 913-710-9688
8409 W. 129th Ter
Overland Park, KS 66213

캔자스 장로 성가단
(단장: 김영렬 장로)913-593-7776
(총무: 배규태 장로) 816-333-128

장영준 치과

STATE AVENUE DENTAL OFFICE



www.kcfastbraces.com
fastbraceskansascity.com

FASTBRACES TECHNOLOGY

치아부리 손상없이 약 5개월 안에 교정합니다!

가격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예약하세요!

913-299-8554



일반교정		새로운 교정기술 Fastbraces
1	Used for Decades	Used for Over 20 Years
2	Often Changes to Nature Bite	Natural Bite Preserved
3	Extractions Needed Often	Almost Always Non-extraction
4	Multiple Wires Used	Just One-Wire
5	Typically 2 Years	Could Be 20 Weeks
6	Typically High Cost	Typically Low Cost
7	Delayed Root Movement	Immediate Root Movement
8	Root Resorption	Less Resorption Statistically
9	Pain Issues Reported	Pain Reduction Statistically
10	Typically 24/7 Retainers	Typically 15-20 Min/Day Retainers

진료분야

임플란트
보철 치과 (크라운, 브리지, 틀니)
교정 치과 (Bracket, Invisalign)
신경 치과
소아 치과
미용 치과
치아 미백
구강암, 후두암, 갑상선암 검사
일반 치료, 발치, 잇몸치료
예방 치과

진료시간

Mon-Fri 8am-5pm
Sat-Sun Emergency Only

주소

6708 State Avenue
Kansas City, KS
66102

